

말씀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의 벗

2 1995

별책부록: 어린이란





표지 설명

코리나 카스코(왼쪽)같은 세미나리 교사들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말일성도 청소년들을 도우면서 70여년 전에 드렸던 기도에 대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 "아르헨티나에 이는 변화의 물결", 10쪽 참조.(요표지 사진 촬영:래리 에이 힐러, 뒷표지 사진: 에프 피 지(FPG) 인터내셔널 제공)

어린이란 표지 설명

독일 프라이베르크 성전 부지에서 포즈를 취한 에스민 도나(사진 촬영: 페기 옐링하우스)

일반

| | |
|--|----|
| 대관장단 메시지:손과 마음으로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2 |
| 요시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브라이언 엠 웨이트 | 8 |
| 부모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에프 앨빈 하몬드 | 16 |
| 가장 위대한 설교 데이빌 더블류 백맨 | 26 |
| 독생자를 닮았도다 알 발 존슨 | 34 |
| 식량을 위한 기도 주아나 리디아 캄포스 몰리나 | 41 |
| 테이프에 녹음된 우리 가족의 신약전서 캐롤 가필드 시그밀러 | 46 |

청소년란

| | |
|---------------------------------|----|
| 아르헨티나에 이는 변화의 물결 래리 에이 힐러 | 10 |
| 독자를 위한 참고 사항 | 20 |
| 간증의 힘 힐러리 헛트 | 24 |
| 몰몬 메시지 "하나님을 바라보아 살도록 하라" | 33 |
| 셋이서 이룬 조화 아드리안 고스틱 | 42 |

정기특별기사

| | |
|--------------------------------|----|
| 애독자 편지 | 1 |
| 방문 교육 메시지 "성품도 더욱 구세주처럼" | 25 |

어린이란

| | |
|--|----|
| 몰몬경 이야기:왕정과 대 자유파 | 2 |
| 친구가 친구에게:브이 델러스 메릴 장로 | 4 |
| 어린 친구에게:감사 놀이 레베카 엠 테일러 | 6 |
| 심심풀이 | 8 |
| 탐험:염소 털옷과 진흙 벽돌 비비안 파울센 | 10 |
| 함께 나누는 시간:나는 신앙개조를 믿는다 케어런 로우프그림 | 12 |
| 이야기:최고의 선물 그레첸 에이 할취 | 14 |

성도의 벗 1995년 2월호

성도의 벗은 알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 간: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시모아어, 스웨덴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

격월간: 인도네시아어, 타이어, 케 라친시아어, 불가리아어, 체코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대판장단: 하워드 더블류 헨터, 고든 비 헝클러, 토마스 에스 몬슨

심사도 정회원: 보이드 케이 패커, 앨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피 아우스트, 빌 에이 맥스웰, 리셀 윌 벌슨, 앨리 에이치 욱스, 영 리셀 벌러드, 조셉 비 워스리,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러드

편집인: 렉스 디 피네가, 조 제이 크리스티슨

고문: 윌리엄 올 브래드포드, 스펜서 제이 쿨다, 존 에이치 그로버그

교과 과정부 관리자들:

관리 책임자: 로널드 엘 니이텐

기획 및 편집 책임자: 브라이언 케이 켈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올 로이보그

잡지 그래픽 부장: 영 엠 기외사키

성도의 벗: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알 발 존슨

부편집인: 데이비드 미첼

편집인 보조/어린이란: 디앤 워커

스케줄 관리: 매리앤 마틴타일

미술 책임자: 스킵 밴 켈렌

디자이너: 새리 쿡

생산 관리: 레이놀드 제이 크리스티슨, 테니스 커비, 매트 맥스웰, 제인 앤 피터스

구독 담당 스템:

발행 부수 책임자: 토마스 올 피터슨

배부 부장: 조이스 앤슨

마케팅 부장: 조이스 앤슨, 캔트 에이치 쇼펜슨

통 권: 제347호, 제32권, 제2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21-3166

발행일: 1995년 2월 1일(월간지)

발행인: 서원

편집인: 한상의

발행소: 알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7번지
광화문 우체국 시사할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은행 지로 번호 3001543

인쇄인: 삼림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1994년 재단 범위 알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영어 승인-10/93 번역 승인-10/93

February 1995 International Magazine의 번역본 Korean, 95082 320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권당 500원이며, 성도의 벗 해외 구독원 경우 항공 우편료 1지역(일본등) 12,000원, 2지역(대리권,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미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 센터(☎739-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NGDO-UI POTISSU 1044-3444) is publishes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orm a recent issue; change,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유일한 연결 고리

저는 교회 활동이 저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주로 놀러 다니거나 해변에서 파티를 갖곤 했습니다. 그 당시, 저를 교회 및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시켜 주는 유일한 연결 고리는 저의 어머니가 매달 집으로 가져 오시는 탐블리(영어판)였습니다. 저는 탐블리를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영적인 메시지와 간증과 성도들의 이야기가 충만히 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을 고양시켜 주는 대판장단 메시지와 전세계에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을 즐겨 읽었습니다. 매달 탐블리를 읽으면서 저는 교회 및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탐블리로 말미암아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탐블리를 읽지 않게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현재 저는 교회 모임과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매달 발행되는 탐블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냐 피 안티케니아

펠리핀 일로일로 스테이크
일로일로 와드

아프리카로 영을 가져다 주는 기사들

우리는 교회 잡지에 큰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프리카 적도 근방에 살고 있는 프랑스 출신의 교회 회원들인데, 교회 모임에 참석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아직 교회가 조직되지 않았음) 기도과 경전 공부 외에는 우리가 매달 받아 보고 있는 르에뜨와르(프랑스어판)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잡지에 실리는 훌륭한 기사들에 큰 감명을 받습니다. 이 잡지를 읽으면서 우리는 프랑스에서 성찬식 모임을 하면서 느꼈던 것과 똑같은 영을 느낍니다.

프란수아 빌레트와 안-마리 셀레르
가봉, 리브르빌

영이 들보심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 주신 귀중한 선물인 특별한 두 어린 소녀들을 주님의 방법대로 인도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젊은 어머니입니다. 저는 그러한 사실과 이 지상에서 주님의 교회의 회원이 된 것을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저를 행복과 진리로 인도하는 나침반입니다.

아 리아호나(포르투갈어판)는 제 생활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 리아호나를 읽을 때마다 저는 주님의 진정한 대표자이신 예언자에 대한 큰 사랑을 느낍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제 영혼과 저의 가족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느낍니다.

마리아 루시아 엘렌 드 올리베이라

세쿠에이라 세자르 와드

브라질 상파울루 페르디제스 스테이크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등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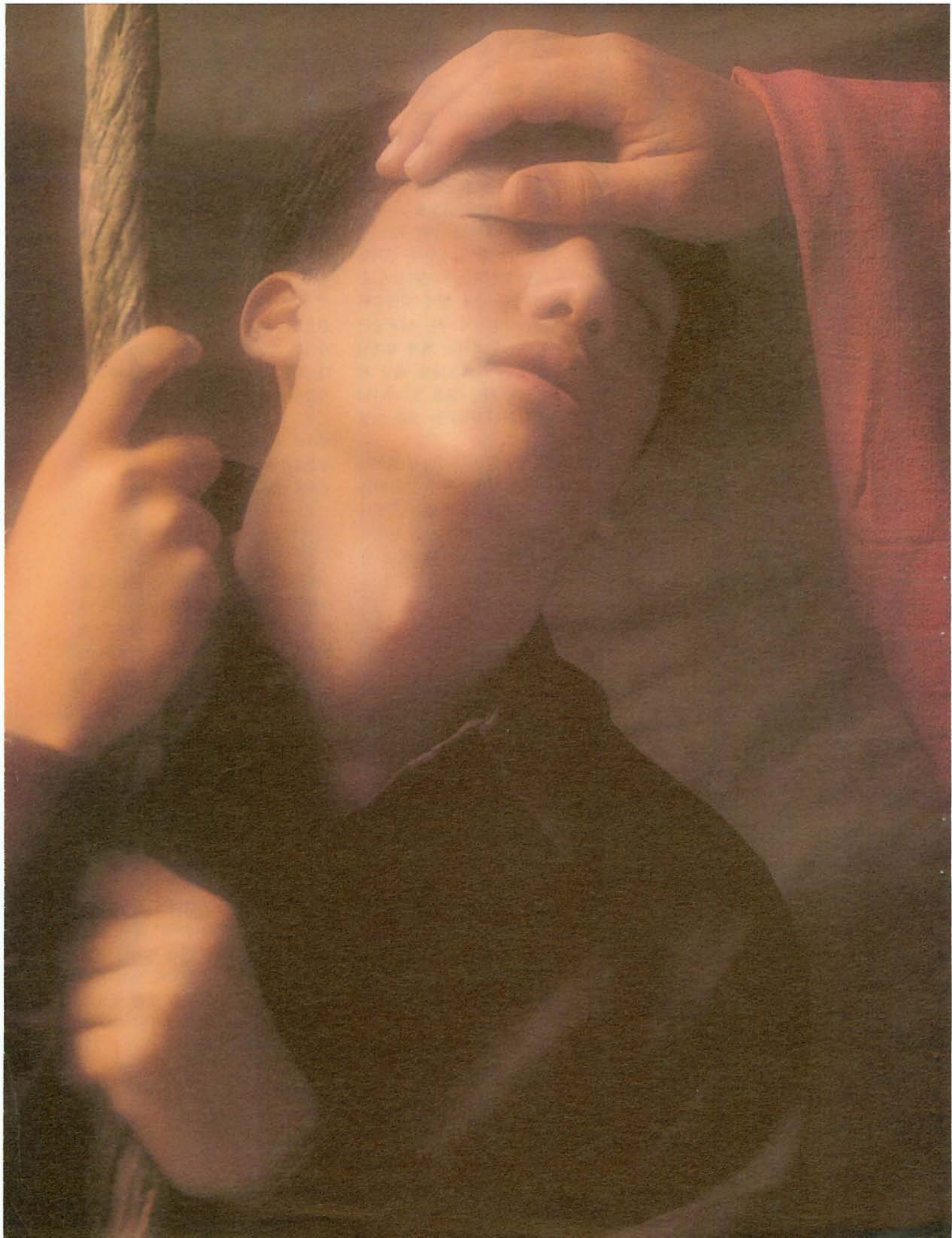
세이또노미찌(일본어판)는 저에게 용기와 도움을 주며, 저를 인도합니다. 또한 제 마음을 밝게 해주기도 합니다. 이 잡지를 읽고 나면 마음이 온통 좋은 느낌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훌륭한 잡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와 저의 가족에게 세이또노미찌는 귀중한 보물입니다. 저는 전세계 형제 자매들에 관한 기사와 이야기를 읽으면서 힘을 얻으며, 서로 다른 곳에 살고 있는 다양 각색의 사람들이 저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이 훌륭한 잡지를 다른 사람과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다른 곳으로 갈 때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경우가 생기면 늘 세이또노미찌를 가져 갑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저는 원하면 언제라도 그것을 읽을 수 있으며, 또한 세상적인 다른 잡지들에 눈을 돌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세이또노미찌는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노리코 노노

일본 오카야마 스테이크

쿠라시키 와드



손과 마음으로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우리는 연차 대회와 스테이크 대회 및 워드 대회에서 어떤 직책에 부름받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오른손을 들어 지지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마음속에 느낀 바를 외부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을 들 때 자신의 마음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서약합니다.

구세주께서는 손과 마음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1832년 3월, 오하이오주 하이람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주신 계시에서, 주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충실하라. 내가 네게 임명한 직분을 감당하라. 연약한 자를 복돋아 주며 처진 팔을 높이 들며 힘없는 무릎을 강건케 하라.

“만일 내가 끝까지 충실하면 불사 불멸의 관을 쓰게 될 것이요, 내 아버지의 집 안에 있는 내가 준비한 처소에서 영생을 얻으리라.”(교리와 성약 81:5~6)

주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저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와 평화로운 가버나움에서 울려 나오는 청중들의 놀라움에 찬 웅성거림을 거의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병고침을 위해 병자들을 데려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중풍 병자가 자신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갑니다. 한 로마 백부장의 신앙으로 그의 종이 건강을 되찾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자를 복돋아 주고, 처진 팔을 들어 올려 주고, 힘없는 무릎을 강건케 하며, 지상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는 일을 돕겠다고 마음으로 맹세하기 위해 손을 사용함으로써 그분을 돕게 하려고 하신다.

예수님은 교훈으로 뿐만 아니라 모범으로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사명을 충실히 완수하셨습니다. 그분은 손을 내밀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들리워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한 문둥병자가 와서 간곡하게 청원하였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마태복음 8:2~3) 문둥병자의 몸을 만진 예수님의 손은 더럽혀지지 않았지만, 그 거룩한 손이 닿음으로써 그 문둥병자의 몸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서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누워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마가복음 1:31)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인 아이로의 딸에게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찾던 중에, 그분을 만나자마자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마가복음 5:23)라고 간청하던 아이로의 심정을 부모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으나” 부모는 슬퍼 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통곡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누가복음 8:49~50, 52, 54~55) 다시 한번 주님은 손을 내밀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도들은 그분의 모범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바쳐 다른 사람

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사셨습니다.

자신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고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별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하늘이나 외부 환경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또 구세주께서 보여 주신 모범에 따라 찾아야 합니다.

성전의 미문에서 베드로가 경험한 일을 생각해 봅시다. 앓은뱅이로 태어나 매일 성전 문에 운반되어 와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선을 구하는 사람의 생활이 얼마나 고달픈지는 누구나 동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가 다가왔을 때 그 앓은뱅이인 자가 구걸을 한 것은 그 두 사람이 매일 자기 앞을 지나다니는 수많은 여느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근엄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그 앓은뱅이인 자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사도행전 3:4~5)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감명 깊은 말은 시간의 강을 타고 흘러 심지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흘러 진실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올려 주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흔히 우리는 여기까지만 인용하고 다음 구절에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사도행전 3:6~8)

도움의 손길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병든 몸이 치유되고, 또 하나의 고귀한 영혼이 하나님께 들어올려졌던 것입니다.

시간은 지나갑니다. 상황은 변합니다. 여건도 변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를 북돋아 주고, 처진 팔을 높이 들어주며, 힘없는 무릎을 강건케 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기대는 자가 아니라 들어올리는 자가 되어야 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안의 나무에는 가지가 많습니다. 봄이 올 때마다 더 많은 새싹이 고개를 내밀니다. 우리는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면서도 마음과 마음으로 대화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손을 뻗고 “길르앗의 유향 좀 주십시오.”라고 절규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응답해야 합니다.

에드윈 마크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릴 형제로 묶는 인연이 있네.
아무도 홀로 견진 않아.
우리가 다른 이의 생활에 보내는 모든 것
우리 생활로 돌아오네.

비탄에 빠진 아버지의 간청을 들은 예수님은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즉시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 났다.

(“신조”, 종교시 걸작선, 제이 디 모리슨 편, 뉴욕:하퍼, 1948년, 464쪽)

“...형제를...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3:14)라고, 1천 9백 여년 전, 사도 요한은 기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인이나 세상의 낙오자들에게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며 이렇게 조롱합니다. “다 자업 자득이지 뭐.”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저 자는 절대 변화될 위인이 아냐. 제 버릇 남주겠어?” 하지만 외양의 안을 바라보고 한 인간의 진실한 가치를 인정할 줄 아는 소수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때, 바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억압당한 사람들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 및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은 “이제부터...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에베소서 2:19)이 됩니다. 진실한 사랑은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고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는 *마이 페어 레이디*라는 연극에서 아름답게 묘사되었습니다. 꽃과는 처녀인 엘리자 두리들은 자신이 좋아했으며 후에 그녀를 것처럼 평범한 상태에서

끌어올려 준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이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들[복장과 말씨 등]을 빼면, 숙녀와 꽃과는 처녀

의 차이점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우받느냐에 달려 있지요. 전 히긴스 교수에게는 언제나 꽃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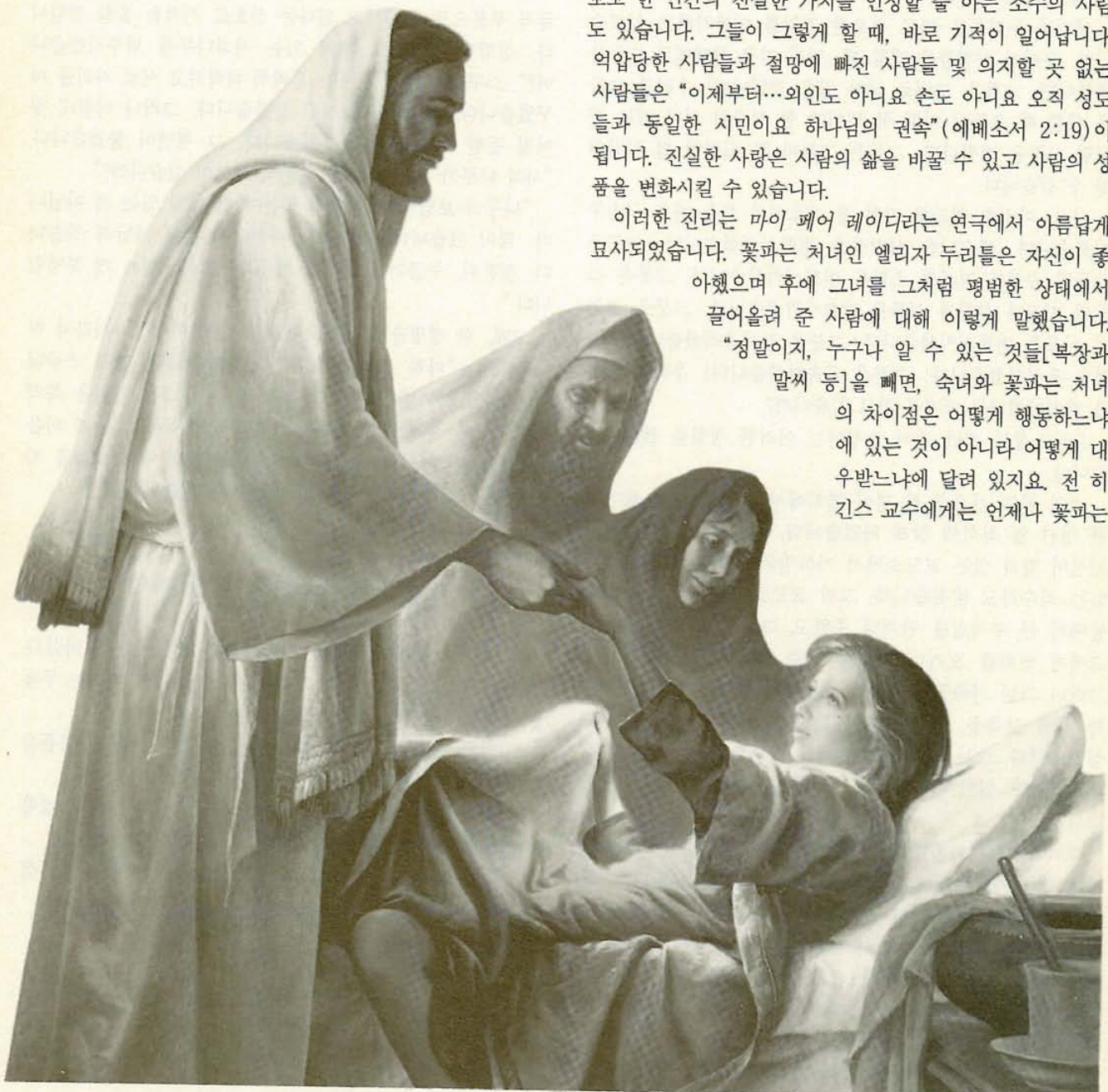


그림: 게리 그 올슨

처녀일 따름이예요. 그분은 절 항상 꽃피는 처녀로 대하고, 또 늘 그럴테니까요. 하지만 전 당신에게서는 숙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당신은 늘 저를 숙녀로 대해 주시고, 또 늘 그러실테니까요.”(마이 페어 레이디 참조, 조지 버나드 쇼 각색, 피그말리온)

엘리자 두리들은 바로 심오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단지 지금 상태대로 그들을 대한다면, 그들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이 마치 꼭 되어야 할 사람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을 대한다면, 그들은 그들이 꼭 되어야 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원리를 가장 잘 가르치신 분은 바로 구속주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습성과 견해와 소망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기질과 성향과 성품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분은 들어올리셨습니다! 그분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은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교도소장인 케년 제이 스쿠더는 이러한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친구 가운데 한 명이 열차에서 몹시 침울해 보이는 한 청년 옆 좌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한참 후에 그 청년은 자신이 멀리 있는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죄수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교도소 수감은 그의 가족들에게 큰 수치심을 안겨다 주었고, 그의 가족들은 한번도 그에게 면회를 오거나 편지를 자주 보내지도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그는 가족들이 여행하기에는 너무나 가난하고 글을 쓸 만큼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면회를 한번도 오지 않고 자주 편지하지도 않았지만, 자신을 이미 용서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족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마을 외곽에 있는 가족의 농장 길로 기차가 지날 때 그를 위해 표식이 될 만한 것을 걸어 달라고 편지했습니다. 자기를 용서했으면 철로 가까운 곳에 서 있는 큰 사과나무에 하얀색 리본을 달고, 자기가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서쪽으로 가는 기차 안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고향 마을이 가까워짐에 따라, 그는 너무나 두려워

감옥에서 석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던 청년은, 그의 가족이 자신을 용서했다는 표시로 나무에 하얀색 리본을 매달아 주기를 원했다.

도저히 창 밖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분이 지나면 기관사는 우리가 제 고향 마을 입구의 긴 굴곡 부분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신호로 기적을 울릴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철로 변에 있는 사과나무를 봐주시겠습니까?” 스쿠더 형제의 친구는 흔쾌히 허락하고 서로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몇 분이 몇 시간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찢어질 듯한 기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청년이 물었습니다. “사과 나무가 보이십니까? 하얀색 리본이 있습니까?”

“나무가 보입니다. 하얀색 리본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가지마다 하얀색 리본이 매달려 있습니다. 젊은이, 누군가 젊은이를 매우 사랑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때, 한 생명을 괴롭히고 있던 괴로움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기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스쿠더 형제의 친구는 말했다고 합니다. 진실로, 그는 기적을 목격했었습니다. 우리도 구세주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손과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새로운 삶으로 들어올려 주고 그들을 사랑할 때, 이와 똑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주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권고하셨다. “연약한 자를 복돋아 주며 처진 팔을 높이 들며 힘없는 무릎을 강건케 하라.”(교리와 성약 81:5)
2. 참된 사랑은 인간의 삶을 바꿀 수 있고 인간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다.
3. 예수님은 사람들의 습성과 견해와 소망과 기질과 성향과 성품과 마음을 변화시키셨다.
4.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행하셨던 것처럼 행하라고 권고하신다.



요 시 를 결 코 잇 지

브라이언 엠 웨이트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저는 마리아 요셀린 카스틸로를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마리아를 “요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요시와 그녀의 사촌인 네스토르에게 첫번째 토론을 가르쳤습니다. 영이 강하게 느껴졌으며, 요시는 물론경을 읽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요시와 네스토르는 우리를 매우 반겼으며, 그들 외에 복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다섯 명이 더 있었습니다. 또 한번은 그 곳을 방문해서 요시의 언니인 줄리와 근처에 살고 있는 요시의 사촌들에게 첫번째 토론을 가르쳤습니다.

복음 토론은 정말 훌륭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요시는 부탁 받은 내용을 모두 읽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물론경을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시는 곧 침례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침례 날짜가 점점 가까워지자 저에게는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시는 한쪽 다리가 없기 때문에 목발을 짚고 다녀야 했습니다. 더구나 머리에는 두건을 쓰고 있었습니다. 요시의 집을 세번째 방문하던 날, 우리는 요시가 3년 전 암에 걸려서 한쪽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의 진행을 더디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요시는 고통스런 화학 치료를 받기 시작했으며, 나중에는 머리가 다 빠지게 되자 두건을 쓰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저하면서 요시를 교회로 초대했습니다. 제가 “주저하면서”라는 표현을 쓴 것은 요시의 집이 십리 가량 떨어져 있는 데다, 그것도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언덕 기슭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시는 한쪽 다리가 없는 데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만큼 재정적으로 넉넉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요시를 교회에서 보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

다.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모임이 시작된 지 20분이 지났을 때, 요시가 사촌과 함께 문을 들어서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요시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시는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요시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제가 머리가 아프거나 피곤해서 교회를 빠졌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요시가 교회에 오기 위해 얼마나 큰 고생을 하였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시는 일요일에 교회 모임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요시가 기침을 할 때 고통스런 모습을 애써 감추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암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시가 침례받기로 한 날이 되었을 때, 요시는 저에게 준비가 될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침례를 받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 보는 앞에서 두건을 벗어야 한다는 것이 몹시 당혹스러웠던 것입니다. 저는 순간 짝막하게 기도를 드린 다음, 요시에게 확신을 줄 수 있었습니다. 요시는 갈아입을 옷과 수건을 받아 들고 미소를 짓더니, 고맙다고 했습니다.

요시의 침례식에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영을 느꼈습니다. 요시는 물론, 침례식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머지 가족들과 이웃 사람들 및 친구들이 개종하도록 도왔습니다. 결국 요시의 어머니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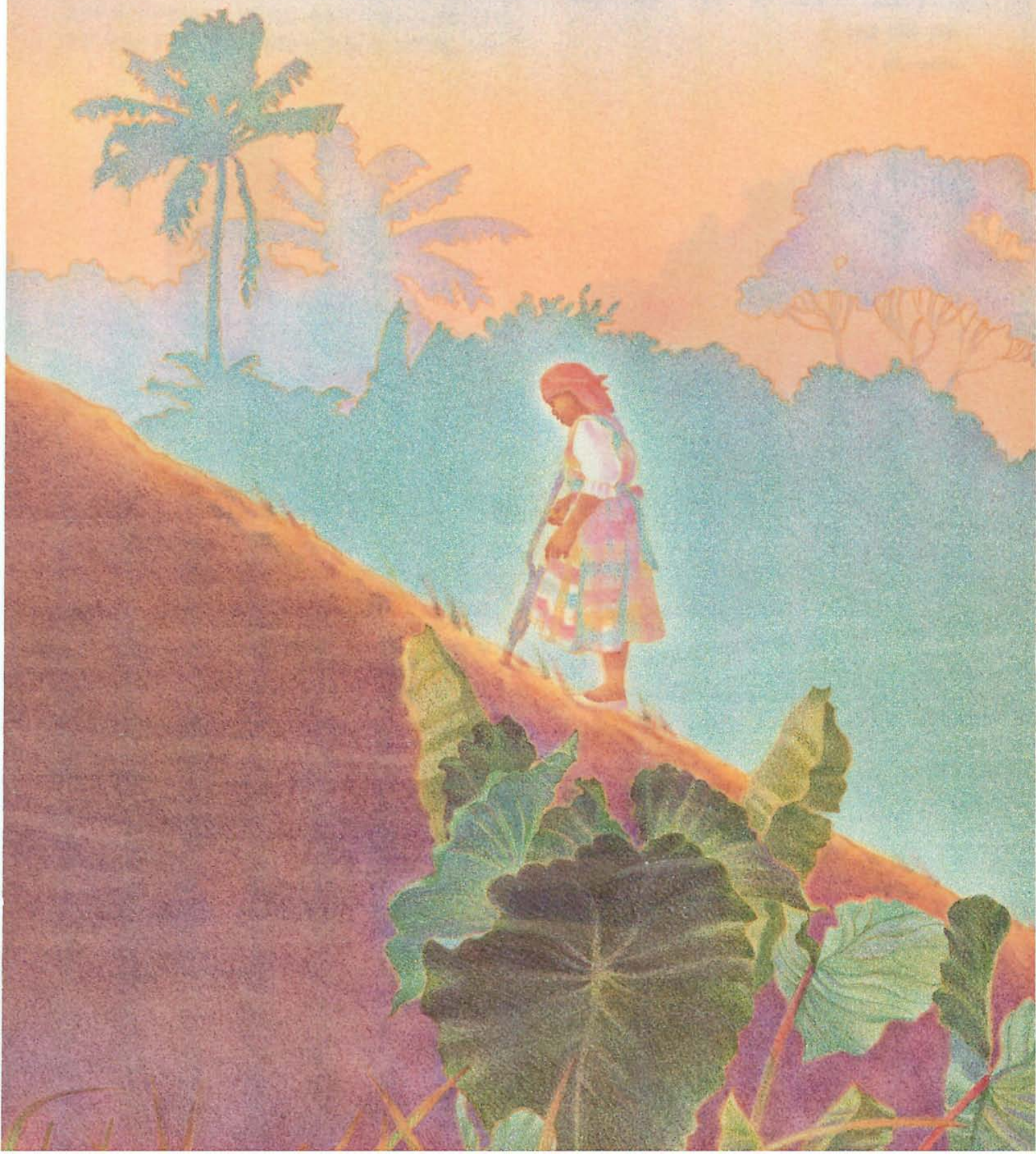
그러나 요시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어서 결국 다음 세상으로 떠나갔습니다. 것처럼 친하게 된 요시가 죽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 저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침내 제가 이 젊은 여성이 구세주께 더욱 가까워지도록 돕는 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요시의 장례식 날, 워드 회원들은 장례 치르는 일을 도우면서 베냐민 왕이 말한 큰 사랑을 보여 주었습니다. 요시의 어머니는 관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 보다 실신을 해서 30여초 동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요시의 어머니는 의식이 들자 하늘을 쳐다보시더니 부드러운 음성으로, “알람코 쿵 나사안 나 시야”하고 세 번이나 말했습니다. 타칼로그어로 그 말은 “나는 지금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안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요시를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복음이 우리와 우리 가족과 친구들에게 얼마나 밝은 빛을 가져다 주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시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

실제로 그녀의 전생애는 힘든 투쟁이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다를 바 없었다.

못 할 것 입 니 다 .



아르헨티나에 이는 변화의 물결

래리 에이 힐러

사진촬영 : 저자

이 것은 역사 수업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를 알기 위해 과거에 관해 조금쯤 알아야 할 때도 있다.

1925년의 성탄절 아침,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공원에 있는 강가로 세 명의 남자가 걸어 내려가고 있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휴일이라서 늦잠을 자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가족을 남겨 두고 21일간이나 증기선을 타고 여행하여 그 곳에 도착했다. 심이사도 정원희의 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는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으로부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남미 대륙 전역을 헌납하라는 지시를 받고 파송되었다.

그래서 벨라드 장로는 그 도시 사람들이 여전히 잠들어 있을 동안 롤런 에스 웰스 장로 및 레이 엘 프렛 장로와 함께 작은 버드나무 숲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찬송가를 부르고 물몬경을 읽었다. 그런 후 벨라드 장로는 “모든 남미 국가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문이 열리도록” 사도의 권능으로 기도를 드렸다. 그때부터 연못에 돌을 던진 것처럼 복음의 메시지는 대륙 전체에 파문을 일으키며 전해졌다.

벨라드 장로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한 이래 남미의 교회 회원 수는 열두 명도 채 안되는 상태에서 백만 명이 넘는 상태로 늘어났다. 해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있다. 말일성도의 예배당 숫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성전도 여러 곳에 세워지고 있다.



오른쪽: 세미나리 졸업식은 이른 아침의 간증 모임으로 시작된다. 가운데 : 세미나리는 봉사이기도 하다. 학생들은 사진의 스카우트들 처럼 자주 봉사 활동에 참여한다. 맨 오른쪽 :저녁에 열리는 공식적인 행사는 한 해 의 세미나리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 : 학생들이 싱싱한 오디를 따면서 즐거움을 나누고 있다.



물결이 시작된 곳에서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은 돌이 떨어진 곳에서부터 재빨리 잠잠해진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말일성도 청소년들과 조금만 함께 시간을 가져 보면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이곳의 복음 물결은 여전히 커지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세미나리이다.

그것이 바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세미나리 졸업 때가 여느 주말과 같지 않은 이유이다.

약 70년 전에 벨라드 장로는 그 작은 버드나무 숲에서 힘찬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 "미래의 책임을 걸머진 주님의 교회의 청소년들에게...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이 자신을 깨끗하





게 지키고...그들의 영광스러운 운명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였다. 아르헨티나의 말일성도 청소년들에게는 세미나리아말로 그 기도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응답의 하나였다.

에드와도 라투렛이 "세미나리는 힘의 근원이예요"라고 말하자 데브라 알바레스가 "전 세미나리에서 간증을 얻었어요"라고 한 마디 덧붙인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다른 세미나리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그같은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번 주말에 세미나리 졸업식이 그토록 중요한 행사가 되는 이유이다.

파르퀘 3 데 페브레로 (페브루어리 제3공원)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어떤 학생들은 이른 아침의 간증 모임에 참석하는 것으로 주말의 활동을 시작한다. 그리고 벨라드 장로가 그 땅을 헌납하였던 곳이 파르퀘 3 데 페브레로보다 더 그 모임을 갖기에 적합한 곳이 있을까?

토요일 아침 여섯 시, 그 공원은 아주 조용하였다. 야자나무들은 연한 핑크빛 여명 속에서 여전히 어두운 윤곽만 보인다. 학생들이 공터에 모여 기도를 드리고 "저는 교회가 참됨을 압니다.", "저는 요셉 스미스가 예언자임을 압니다."라는 귀에 익은 간증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졸린 듯한 음성엔 잠이 덜 깬 새들의 우짖음과 뒤섞였다.

모임을 마친 후 비히니아와 에스테만과 카로리나 및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원을 걸어 보라. 그들은 뿔나무 주변에 모여 그 자줏빛 열매를 따먹느라 손과 얼굴이 얼룩진다. 그들은 서로를 좋아하며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다. 마리아 호세 멘후루는 후에 "우리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옳은 일을 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라고 말했다.

그들은 농구나 축구를 하면서 또 볼링을 하고 피자과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가능한 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함께 춤을 추는 시간도 갖는다. 그들은 춤추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 실제로 이번 토요일 밤에 세미나리 졸업식이 없었다면 그들은 아마 춤을 추고 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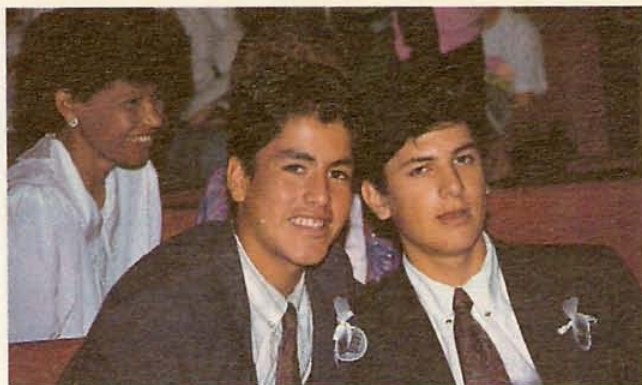
주요 행사

이것은 단순한 의식 이상의 것이다. 특별한 행사인 것이다. 깃발들로 장식된 건물 안은 학생들과 그들의 가족들로 붐빈다. 거리에는 폭우가 무릎이 잠길 만큼 쏟아지는 동안 어머니들은 부엌에서 그날 밤에 먹을 음식들을 접시에 산더미처럼 담고 있다. *엠포나다스*와 고기로 속을 채운 짹짹한 *턴오버*의 맛있는 냄새가 건물 전체에 풍기기 시작한다.

그러면 졸업식 자체는 어떤가? 그것은 결코 호명되면 연단으로 올라가 졸업장을 받는 정도의 것이 아니다. 학생들과 교사들과 지도자들 사이에는 진정한 애정이 흐른다. 아쉬운 마음에 악수가 길어진다. 조용하게 대화가 이루어진다. 그 때 문에 행사 시간은 더 길어지지만 아무도 그것에 개의치 않으며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곳의 세미나리 졸업식은 주요 행사이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일요일 아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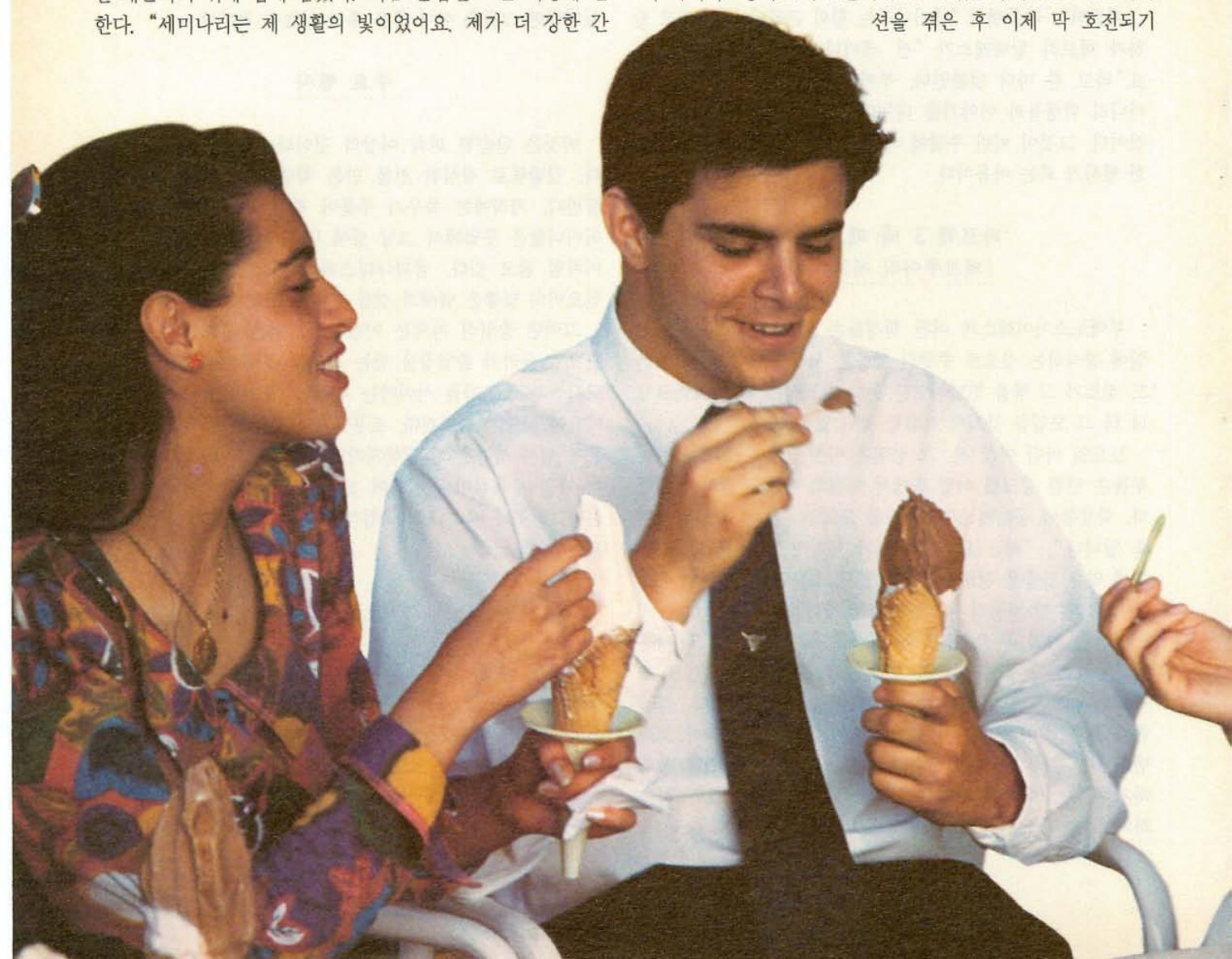
다음날 아침, 일요일은 새벽부터 맑고 따뜻했으며 하늘은 하얀 솜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가로수가 늘어선 넓은 길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도시이다. 아침 시간이 조금 지나자 보도와 공원들은 산책하러 나온 사람들로 차고 넘친다. 벨그라노 근교의 한 예배당처럼 이 시간 동안은 말일성도 예배당이 가장 바쁜 곳 중의 하나가 된다. 이



곳에서 우리는 페데리코 카스토와 같은 청소년을 만날 수 있다. 페데리코는 그의 아버지가 사업상 미국에 갈 때 동행해서 디즈니랜드를 가볼 기회가 있었지만 세미나리에 사 년 동안 개근하기 위해 집에 남았다. 지금 졸업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세미나리는 제 생활의 빛이었어요. 제가 더 강한 간

증을 갖도록 도와주었고 또 선교사로 봉사하겠다는 결심을 하도록 도와주었어요."

선교사로 나가는 것은 아르헨티나 청소년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 경제는 수년간의 높은 실업률과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은 후 이제 막 호전되기



아르헨티나의 세미나리 학생들은 교사들의 도움으로 복음의 간증을 키움으로써 그들의 영적인 유산이 강화됨을 발견한다. 세미나리는 세상으로부터 안식처를 제공해 주며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영원한 우정을 쌓도록 도와준다.



북미서부지역 (시프피지) 인터내셔널 시진 촬영 에프피지 인터내셔널

시작하는 중이다.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극히 적으므로 돈을 저축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친구들은 시간제 일을 하지 않고 서로에게 또 교회 봉사에 더 많은 시간을 쓴다.

일요일 밤

마로 베르타는 와드 주일학교에서 제1보좌로 봉사하고 있으며 또 제사 정원회에서 감독의 보조로도 일하고 있다. 플로렌시아 고메스는 청녀 서기이자 초등학교의 별님반 교사이다. 그리고 기에르모 피트블라도는 주일학교 회장이다.

그들은 일요일 밤마다 파체코 예배당에서 스테이크의 다른 친구들과 함께 모인다.

이들은 새로운 신앙에 대해 배우려고 세미나리에 매달리는 새로운 개종자들이 아니다. 그들 중 많은 청소년들이 말일성도 가족의 2세나 3세이다.

그들은 집에서 복음에 대해 배워 왔다. 그러나 디에고 그리피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교회 회원으로 있었던 14년 동안에 배운 것이, 아니라 4년 동안 세미나리에서 배웠던 것이예요. 그 곳에서 저는 경전에 더욱 친숙해지게 되었고 주님의 약속에 관해서도 배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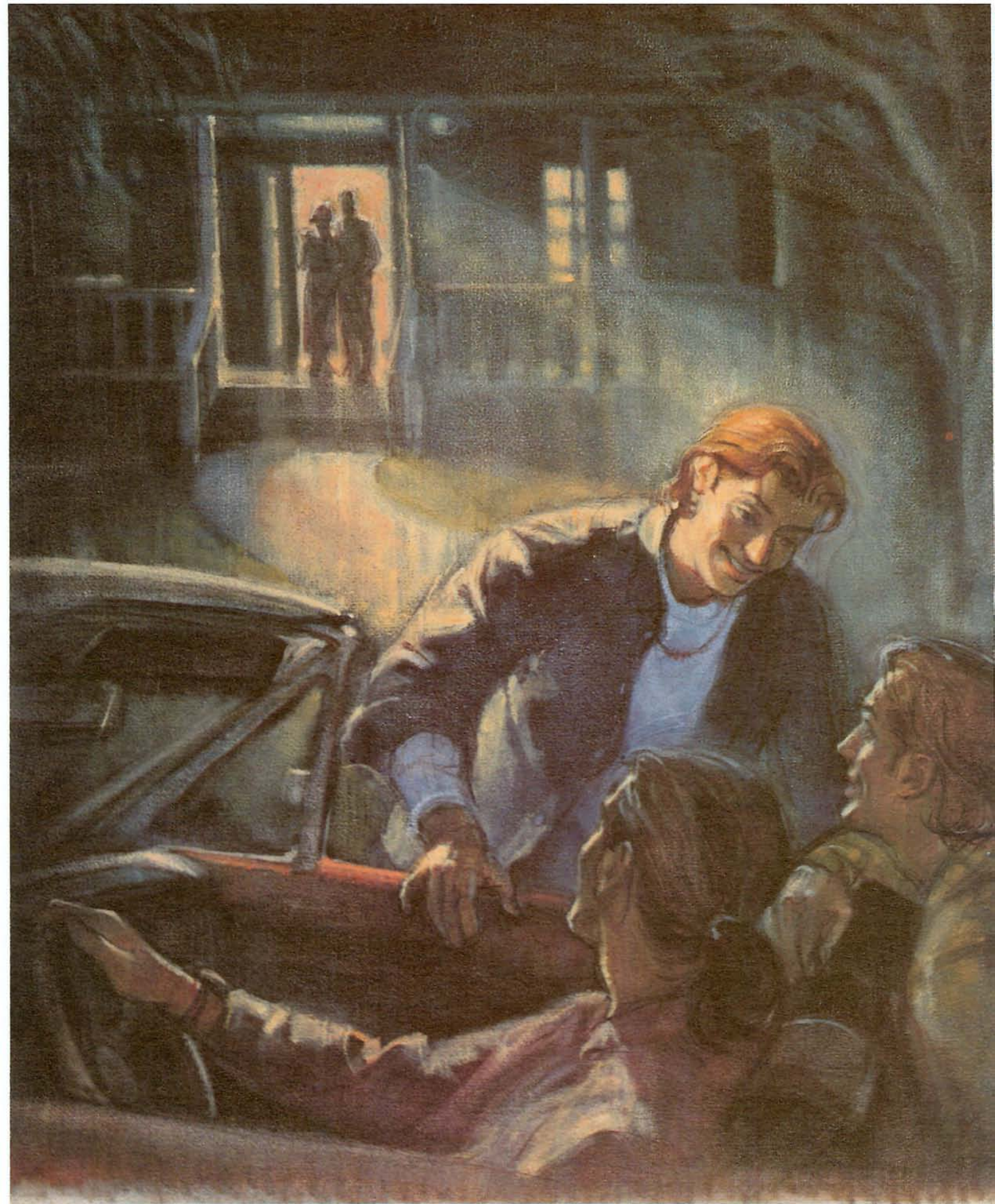
그 밖에도 데보라 와쿠는 여러분이 십대라면 주변에 더 많은 유혹이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세미나리가 없다면 “그러한 유혹에 저항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아마도 후안 호세 소페티가 그것에 대해 가장 잘 요약해서 말한 것 같다. “저는 세미나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사명에 대한 간증을 가장 많이 키워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회복된 지식, 즉 그의 사명과 계명에 대한 회복된 지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바로 그 복음 때문에 약 70년 전에 한 대륙에 물결이 일도록 벨라르 장로가 파송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물결이 시작된 이곳, 아르헨티나의 말일성도 청소년들은 분명히 복음의 물결이 계속 일도록 하고 있다. □





부모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에프 멜빈 하몬드 장로

철십인 정원희

교회 모임이 끝난 후 한 아버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하나뿐인 아들은 장래가 촉망되고 순진한 청소년이었으나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 반항적으로 변했고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애정어린 마음으로 아들의 청소년기를 회상했습니다. 그 소년은 차분하고 가족 농장에서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을 포함하여 신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언제나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는 그 목표를 위해 충실하게 돈을 저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돈은 그의 훌륭한 목표와 함께 모두 사라졌습니다. 마약과 술과 부도덕의 홍수로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그 충실한 부모는 흔들리는 아들을 돕기 위해 사랑과 훈계와 설득과 기도 및 신권 지도자의 도움을 호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써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화를 내며 “이건 제 인생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대로 하겠어요. 잘못되면 고생할 사람은 저 뿐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우리의 첫번째 부모로서 복음의 진리를 주의 깊게 가르쳐 “아들 딸에게 모든 일을 알게” 한 아담과 이브의 자녀 중 어리석은 이들의 태도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이에 사탄이 저들에게 와서 이르되, 나 또한 하나님의 한 아들이라 하고 저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말을 믿지 말라 하니 저들이 믿지 않게 되었으며 도리어 사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라].”(모세서 5:12~13)

절망에 빠져 저를 찾아온 그 아버지는 제게 자신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토로하기 위해 수풀진 언덕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왜 그의 아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지 여쭙었던 것에 대해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는 “아들이 제 엄마의 고녀를 알거나 저희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순간에 있는 저희 아들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제게 물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돌아오기엔 너무 멀어진 것일까요? 아직 희망이 있습니까?”

또 다른 반항적인 아들, 엘마 이세에게 하셨던 다음과 같은 천사의 말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보라 주님께서... 주의 종, 엘마의 간구를 들으셨으니 곧 이는 너의 부친이라, 저가 네게 진리를 알게 하려 두터운 신앙으로 간구한지라.”(모사이야서 27:14) 저는 제 앞에 있는 비탄에 빠진 그



아버지에게 그의 기도 역시 분명히 상달될 것이며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한 후 나머지는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에 맡겨야 한다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충실한 사 람들에게는 참으로 모든 일이 가능하므로 계속해서 희망을 품고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한 아들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은 또 다른 아버지, 즉 한때 천사와 마주선 적이 있는 엘마 이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엘마는 조람인에 대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버리고 “창녀 이사벨을 따라”(엘마서 39:3) 간 아들 코리엔 톤 때문에 슬픔을 겪었습니다. 이 도덕적인 타락은 조람인들에게 영향을 미쳐 복음의 메시지를 거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엘마는 그의 아들에게 “조람인들이 너의 처신을 보고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엘마서 39:11)다고 말했습니다.

그 상황은 이전에 기록된 어떤 것보다 아버지와 아들 간에 가장 위대한 가르침의 순간 중 하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엘마는 회개에 관련된 핵심적인 교리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코리엔톤에게 “너의 잘못을 고하고, 네가 행한 일들이 그릇되었음을 밝히라.”(엘마서 39:13)라고 말하면서 죄를 인식하도록 타일렀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엘마서 41:10)며 이 세상에서 우리 생활의 일부로 만들었던 일은 필연적으로 부활시에 우리 성품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엘마서 41:13~15 참조) 엘마는 공의로 말미암아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속죄를 통해 “자비[가] 회개한 자 위에 내리”(엘마서 42:23)지 않는 한 “율법은 벌을 가”(엘마서 42:22)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예언자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여 “마음이 낮아져서 티끌처럼 겸손하게 되도록 하라.”(엘마서 42:30)고 타일렀습니다.

물론경은 엘마의 그 빛나간 아들이 아버지의 친절한 권고를 좇아 회개하여 선교 지역으로 되돌아간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줍니다.(엘마서 42:31; 43:1~2; 49:30 참조) 경전에 나오는 이 영감에 찬 이야기는 그 교리적인 가르침과 더불어 교회의 모든 부모와 자녀에게 커다란 희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며 또 예언자의 자녀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님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는 저를 찾아온 그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에게 스스로 심연으

로 미끄러져 들어갔다가 후에 회개를 통해 길을 발견했던, 제가 아는 한 청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청년의 아버지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교육을 위해 그를 대학교로 보냈습니다. 그는 성공하겠다는 포부나 소망을 별로 갖지 않고 진학하였기 때문에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되지 않아서 그는 사소한 것을 흥미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는 “그저 재미로 그랬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잡혔으며 집행 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보내준 돈을 재미있는 시간을 갖는 데 다 허비해버린 후 그는 자포 자기해서 많은 액수의 돈을 훔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주 교도소로 보내졌습니다.

제가 그 교도소 근처로 여행할 것임을 안 그의 감독은 제게 그 청년을 방문해 줄 수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저는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과 함께 갔습니다. 커다란 문이 우리 뒤에서 확 닫혔으며 간수들은 우리 몸을 주의 깊게 수색하였습니다. 그런 후 우리는 죄수들을 면회할 수 있는 조그만 콘크리트 건물로 안내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심술궂고 험악하며 위협하고 공포감을 주는 무자비한 범죄자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자 제가 여태껏 본 중에서 가장 잘생긴 젊은이 중 한 사람이 깨끗하게 면도하고 빗질한 채 단정한 모습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고 미소를 지었으며 손을 내밀어 악수를 했습니다.

그는 “스테이크 부장님, 어떤 일이세요? 아마 스테이크 부장님은 저를 보신 적이 없겠지만 저는 스테이크 대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뵈 적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후 그는 진지하게 “저의 가족은 어떻게 지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부모에 대해 안심시켜 준 뒤 우리는 형기가 언제 끝



날지,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지 등,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삭막한 환경 속에서도 명랑하고 밝게 보였습니다. 저는 얘기를 나누던 중에 그에게 정말 고 발된 그런 일들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즉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 이상으로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들을 당연히 겪고도 남습니다.” 그는 손짓으로 감옥과 그 주변을 끌어안는 시늉을 했습니다. “저는 거의 모든 것을, 자존심과 친구와 가족의 신임 등 거의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의 턱이 떨렸으며 얼굴은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울음을 터뜨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흐느낌으로 떠는 그의 몸을 마치 제 아들처럼 끌어 안았습니다.

그가 평정을 되찾은 후 우리는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를 가르칠 놀라운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는 겸손했으며 열심히 배우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과 회개와 구세주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에 관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 젊은이에게 그리스도께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죄값을 치루기 위해 그의 깨끗한 생명을 거룩한 제물로 바치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영이 우리 모두를 감동시켰습니다. 저의 젊은 친구는 깊이 뉘우쳤으며 희망으로 차올랐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출감되던 날 아침에 그의 다정한 부모는 아들을 끌어안고 그가 새로운 생활로 들어선 것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아들은 회개하였으며 새롭게 시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구세주에 대해 커다란 사랑을 표시하였으며 교회에서 주어지는 축복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저의 관심과 신뢰와 사랑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저는 그로부터 가끔씩 자신의 향상된 상황에 관해 얘기해 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잘 했습니다. 극복해야 할 어려움과 장애는 계속 있었지만 착실히 발전해 갔습니다. 그가 한 처녀와 주님의 집으로 결혼하러 갈 것이라는 전화를 받고 저는 어느 때보다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죄와 절망에서 의로움과 기쁨으로 완전히 변화되었

습니다. 주님의 영이 그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으며 그는 그 물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고뇌에 차서 저를 찾아온 그 아버지는 이 청년의 변화에 대해 들은

후 언젠가 그의 아들이 영으로 감동되어 회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만 발견되는 평화와 행복과 안전을 찾을 것이라는 희망을 다시금 품고 돌아왔습니다. 고맙게도 그는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친절하고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에 대해 변치 않는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예들은 사랑하는 이들의 불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울부짖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비탄에 잠긴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자포 자기해 버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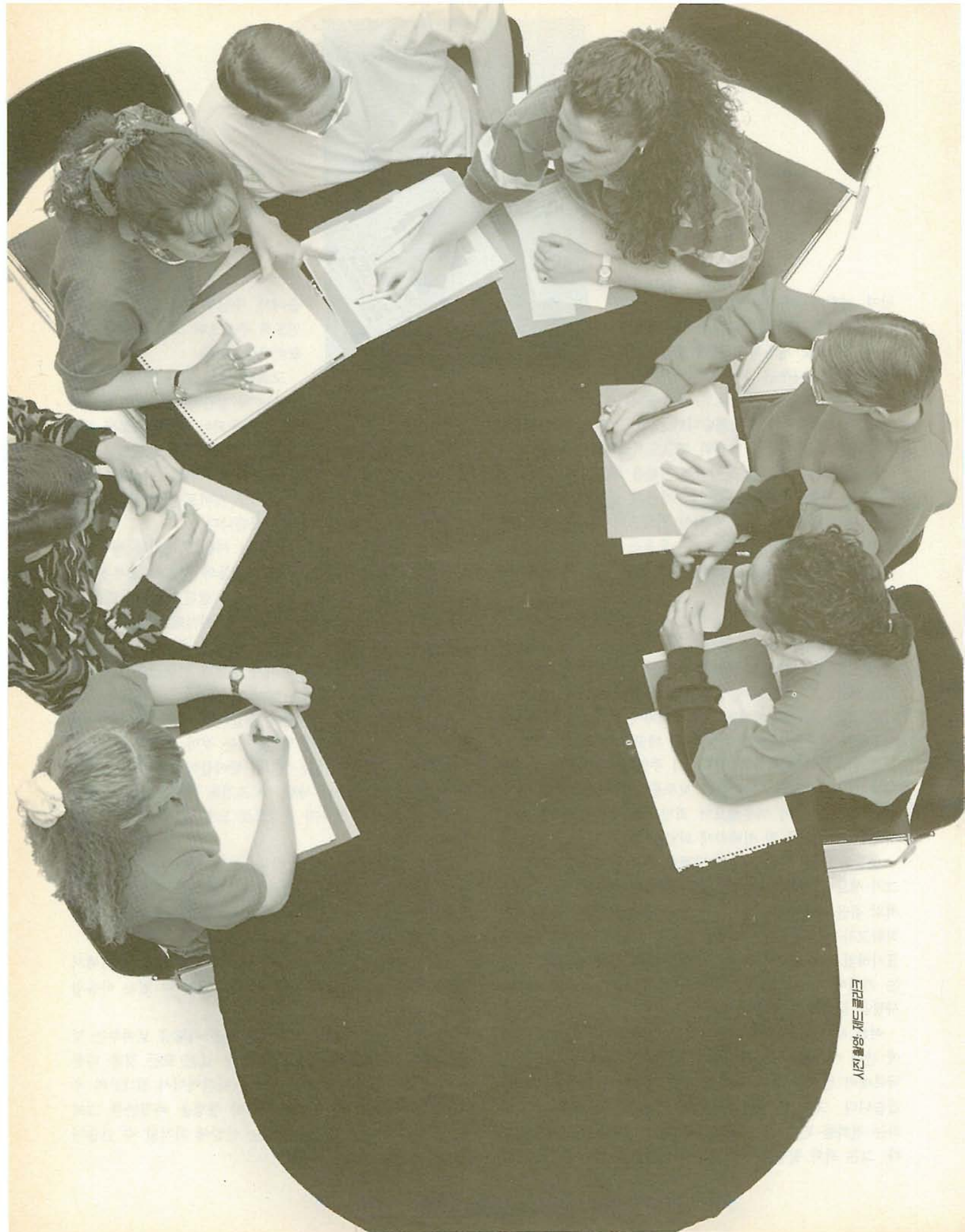
분명히 모든 남녀가 다 주님의 행복의 계획을 받아들인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러나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언제나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주님의 면전에 순결하고 깨끗하게 들어가려면 복음의 구원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들이 이들 원리를 받아들이다록 마음을 움직여 주는 축매는 언제나 사랑, 즉 조건도 가식도 없으며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가 진심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것은 말로써가 아니라 행동으로써 나타나는 종류의 사랑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랑은 가장 강력한 마음을 녹이며 가장 비열한 죄인도 변화시키며 모든 사람을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예배드리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순종하는 자녀들 때문에 세계 도처에서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이 항상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빛나간 이들에 대해 계속적으로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역량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후에는 “전능하신 권세로…구하시”(니파이이서 31:19)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바칠만큼 그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



시간 절약, 제도 불리근

화

모

계

회

래레인 밀러

여러분은 예정보다 늦게 시작하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며 얻는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 계획 모임에 참석해 본 적이 있는가? 여기 훌륭한 계획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몇 가지 제언이 있다.

모임을 계획함

목적물 알아야 한다.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왜 계획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한다. 실제로 이야기할 것이 전혀 없다면 일정이 잡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임을 갖지 않는다.

사전에,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모든 사람에게 알린다. 그리고 모임을 갖기 전에 미리 임무를 준다. 모든 사람에게 나름대로의 견해를 갖고 오도록 부탁한다. 그렇게 한다면 모임을 가질 때는 이미 몇 단계 진전된 상황에 있게 될 것이다.

위원회의 일원이 예정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참석을 강요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도 훌륭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음을 기억한다.

모임 장소를 신중하게 선택한다. 그 곳은 사람들이 모이기에 편리한 장소라야 하며 텔레비전이나 전화 소리나 음악 또는 북적대는 사람들이나 어린이들 때문에 방해받는 장소가 아니어야 한다. 편안하게 느낄 수 있을 만큼 자유스러운 곳이어야 하지만 또한 모인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 공적인 느낌이 드는 곳이어야 한다.

모임에서

모임 순서를 미리 준비한다. 토의할 항목 일람표를 만들어서 복사하여 모임 참석자들에게 나누어 준다. 모임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정시에 시작한다. 이것은 함께 모이는 사람들에게 대한 예의이며 모임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이다.

기도로 시작한다. 이것은 교회에 관계 되는 모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영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원형으로 앉는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서로 얼굴을 볼 수 있고 토의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다. 모임을 이끌어 가는 사람은 서 있거나 가운데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는 것이 더 좋다.

누군가로 하여금 기록하게 한다. 그것이 완벽한 모임 기록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에게 아이디어와 보고 및 임무에 대한 기록은 필요할 것이다.

즉석 의견 발표를 통해 각 항목에 대한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듣는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라도 발표할 수 있는 일정한 시간을 준다. 어떤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표면상 관계없는 이야기도 괜찮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들은 후 그 의견들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그 의견들을 기록해야

한다.

발표한 의견들을 검토한다. 즉석 의견 발표 시간이 끝나면 그 의견들이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예산과 맞는지,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길 자원이 있는지 고려해 본다.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선택한다.

종합 계획을 세운다. 어디서, 무엇을, 언제 어떻게 누가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지명을 주면서 달성 기한도 함께 준다. 모든 면을 고려하고 계획하며 자발적으로 행하도록 해야 한다.

위임한다.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모든 것을 혼자서 하려고 하지 않도록 한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각자 일부를 맡아 한다면 그 활동에 대해 한층 흥미를 느낄 것이다.

신속하게 검토한다. 계획했던 것을 살펴보고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와 목표 및 그것에 관해 얘기했던

것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정시에 마친다. 이것은 정시에 시작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모임을 마친 후 격려해 준다. 위원회 구성원들에게 지명받은 일에 대해 여러분이 도와줄 일이 있는지 묻는다. 또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지명받은 일을 완수하게 한다. 일을 완수하는데 있어 언제나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도 별 문제는 되지 않는다.

참여자들을 위해

- 정시에 도착해서 주의 깊게 경청한다.
- 아이디어와 정보 및 제언을 준비해서 참석한다.
- 그 계획에 대한 토론에 집중한다.
- 지명받은 일을 완수한다.
- 의욕적으로 참여하며 도움을 주도록 한다. □

쇼를 공연하며

필리핀 마닐라의 대학부 신학 연구원 학생들은 복음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그래서 그들은 경전과 교육을 강조하면서 부모님들과 청소년들이 복음 원리를 생활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계획된 뮤지컬을 함께 준비했다.

그들은 연습과 공연에 여가 시간을 바쳤다. 그러나 청중들의 반응을 보고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그들은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깊이 감동되어 눈물

을 흘리기도 했다. 그 그룹은 그들이 준비한 여러 가지 쇼를 공연하기 위해 메트로 마닐라와 그 근처 지방을 순회했

다. 한 참여자는 “우리의 노력은 우리가 느꼈던 훌륭한 느낌으로 모두 보상받았어요”라고 말했다.





압에서 복음을 나눔

테오 지 데레온

압은 콤파에서 남동쪽으로 856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101.3 평방 킬로미터의 섬으로서 전체 인구는 9,350명 가량 된다. 그 곳에서 교회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그 곳의 말일성도 청소년들은 담배나 술이나 마약을 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치아를 얼룩지게 하고 몸에 해로운 마약류 물질인 빈랑나무 열매를 씹지 않는 것으로 평판이 나 있다. 말일성도 청소년들은 또 그 섬의 엄격한 신분 제도를 타파하는 것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은 그들 가족의 신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받는다.

최근에 압 지방부(미크로네시아 콤파 선교부)의 청남 청녀들은 선교부장 겸 지방부장의 지시 아래 "일일 선교 사업"을 수행했다.

그들은 니파이일서 3장 7절("...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을 암송함으로써 그날 하루를 시작했다. 그런 다음 "주 섬기라"를 부르고 동반자와 짝을 지어 훈련을 받았다. 그들은 둘씩 짝을 지어 물몬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

그들은 약간의 장애에 부딪혔다. 그날은 하루 종일 비가 왔으며 또 그들이 만난 어떤 사람들은 불쾌해하거나 헐뜯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

것도 그들을 중단시키지는 못했다.

그 결과, 49권의 물몬경이 이 작은 섬에 배포되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복음 선교사에게 전해 줄 많은 구도자 소개 카드를 가지고 돌아왔다. 이미 침례받은 어떤 개종자들은 바로 이 구도

자 소개 카드의 결실이였다.

그날은 간증 모임으로 하루를 마쳤다. 레베카 케이 부춘은 "제 동반자와 저는 영을 얻기 위해 또 물몬경 두 권을 나눠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그것은 아주 훌륭한 경험이었어요. 저는 복음 선교사로 봉사함으로써 언젠가 그것을 다시 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또 암브로스 투운은 "오늘은 그 어떤 날보다 행복한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동반자와 저는 물몬경을 열 권이나 나누어 주었거든요. 이젠 선교사들이 주님의 사업을 하러 나갈 때 어떤 기분인지 알겠어요"라고 말했다. □



간증의 힘



사진 촬영: 존 루크 모델이 포즈를 취함

힐러리 힌트

고등학교 시절의 첫 2년 동안 나는 친구들과 종교가 너무나 달라 교회 회원이라는 사실을 다소 부끄러워했다. 나는 나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았다.

단지 한두 번 정도 용기를 내어 한 친구를 교회에 초대했으며 그것도 금식 주일이 아닐 때 하려고 특별히 신경을 썼다. 나는 만일 그 애를 간증 모임에

먼저 데려간다면 그 애 다시는 모임에 오고 싶어하지 않을거야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여름에 나는 간증 모임의 힘에 대해 한 가지 교훈을 얻었다.

학교는 방학을 맞았고 꽃들이 만발한 가운데 나와 여동생 나탈리는 청소년 대회를 고대하고 있었다. 나탈리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타레네와 안헬이라는 비회원 친구를 데려가려고 하였다. 나는 그들이 간증 모임만 빼고는 청소년

년 대회를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모두 공과와 춤과 사고 모임에 참여하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그런 후 주말의 마지막 활동인 일요일 금식 주일 모임이 다가왔다.

영이 우리를 압도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이 영을 느낀다고 확신했지만 여전히 마이크 앞으로 올라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는 것 때문에 안헬과 타레네가 물론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내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타레네가 마이크 앞으로 올라가 간증을 전했다. 나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비록 말일성도는 아니지만 그 모임 동안 얻은 느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녀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놀라운 영을 느꼈던 것이다.

안헬은 수줍어서 간증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결국 그녀는 교회에 가입했다.

그날 나는 간증 모임이 그 모임에 수반되는 강한 영 때문에 강력한 선교 사업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배웠다. 또한 나는 복음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 수줍고 부끄러운 느낌을 가졌던 것이 잘못이었음을 깨달았다. 말일성도가 되는 것에 관해 부끄러워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다. □

교회가 2,000개의 스테이크를 갖다

1994년 12월 11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장에 있어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그날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은 멕시코시티에서 교회의 2,000번째 스테이크를 조직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와 멕시코 남 지역 회장인 리노 알바레즈 장로가 헌터 대관장이 멕시코에서 멕시코시티 콘트라라스 스테이크를 조직하는 일을 도왔다.

멕시코시티 스테이크의 조직은 교회가 전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한다는 한 증거이다. 첫번째 스테이크는 1834년 2월 17일에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조직되었다.

1928년 유타주 리하이에 백 번째 스테이크가 조직되기까지는 거의 백 년이 걸렸다. 1,000번째 스테이크인 일리노이주 나부 스테이크가 조직된 것은 그로부터 51년 후였다. 하지만 2,000번

째 스테이크가 생긴 것은 불과 15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700,000명 이상의 말일성도가 있는 멕시코는 말일성도 수에 있어 미국 다음으로 많다.

미국에는 4백 5십만명 이상의 말일성도들이 있다.

1875년에 교회가 처음 멕시코에 들어갔지만, 첫 스테이크는 1961년에 조직되었다. 헌터 대관장은 그 이후 멕시코에서의 교회 성장에 밀접하게 관련해 오고 있다. 헌터 대관장은 스테이크의 분리에 도움을 주었으며, 1975년에는 이곳에 다시 와서 5개의 스테이크를 분리하여, 멕시코

에 15개의 스테이크가 있게 하였다.

1977년에 그는 800번째 스테이크를 조직하기 위해 다시 이곳에 왔었다.

또한 멕시코시티에는 1983년에 헌납된 성전이 있다. □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이 지난해 12월 11일 멕시코시티에서 교회의 2000번째 스테이크 조직 후에 말씀하고 있다.

침례는 주지 못했지만...

박광훈 장로(서울 서 선교부)



1994년 7월 17일, 제헌절 겸 안식일이었던 이날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이날 우리는 안식일 모임이 끝난 후 침례식을 갖기로 되어 있었다. 풍성한 영을 느끼며 신권회와 주일학교, 성찬식에 참석했다. 그러나 침례를 받기로 한 세명의 형제중 한 명이 성찬식이

모두 끝나고 나서도 교회에 오지 않고 함께 침례식에 참석하고자 기다리던 회원들의 기다림이 길어지자 나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나는 공과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근 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를 마치고 공과교실에서 나와 다시 전화를 걸었다. 다행히 그 형제가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를 들으니 너무 반가웠다. "무슨 일 있었니?" "몸이 아파서 약을 먹고 잠이 들어서 지금 일어났어요." "지금 준비하고 나올 수 있겠니?" "예" 잠시 후에 그 형제가 왔다. 비로소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함께 기다리던 교회 회원들도 기뻐하였다.

이날 침례를 받을 세 사람은 정동윤, 정동철, 고창환 형제로 정동윤 형제와 정동철 형제는 친형제 지간이고 고창환 형제는 정동윤 형제의 친구였다. 정동윤 형제와 고창환 형제가 중학교 1학년, 정동철 형제가 국민학교 5학년으로 이들은 가가호호를 하면서 만났다. 당시 이들은 침례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 선교사들을 만난 후 회복된 복음을 듣기를 위해, 우리는 부모님들의 허락을 받아서 그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준비를 끝낸 우리는 침례식을 하기로 약속된 장소로 출발했다. 지부장님을 비롯한 일부 회원들이 먼저 출발하

고 나와 동반자는 몇몇 회원들과 침례 받을 형제들과 함께 나중에 출발하였다. 우리는 그날 따라 항상 가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통해 버스 정류장으로 가고 있었다. 그 길은 전에 세 형제들이 다니던 교회를 지나게 되어 있었다.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업습해 왔다. 그곳을 지날 때 몇 사람이 나오다 침례받을 형제 3명을 보더니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는 그들의 손목을 잡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놀란 우리들이 왜 그러느냐고 물었지만 대꾸도 않은 채 가지 않으려는 그들을 끌고 들어갔다.

우리과 같이 가던 회원 중 김 자매님이 "왜 이러십니까?"라며 구도자 형제들을 데려가려는 이들을 제지하자 그중 남자 한 사람이 김자매님의 어깨를 밀쳐 내었다. 나는 분해서 화가 나 있는 김 자매님을 달랠 후 곧장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간 그 교회로 들어갔다. 뒤에서 김 자매님을 밀쳐 내었던 그 사람이 멈추라고 소리쳤다. 나는 계속 걸어 들어갔다. 뒤에서 흥분된 목소리로 소리치며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멈추어 섰다. 선교사로서 분쟁과 다툼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중년쯤 되어 보이는 그 사람은 내앞에 오자마자 어깨를 밀치며 막말을 했고 심지어는 나를 칠 기세였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그 사람은 그 교회의 전도사였고 우리의 구도자들을 끌고 간 다른 사람들은 그 교회의 교사였다. 이성적으로 지금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지만 나를 막아선 그는 나를 밀쳐 내며 나가라는 말만을 되풀이했다. 이해시키려는 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단혀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 그들은 그 교회의 장

로, 집사, 교사, 권사들이었다. 전도사의 말을 들은 이들은 나를 에워싸며 비난하기 시작했다.

우리 구도자들의 부모님이 허락하신 침례 허락서까지 내보이며 설명하려 했지만 이해의 문을 열지 않는 그들에게 청소년들의 자유의지에 맡겨 보자고 권했지만 그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어른들이 결정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는 한번 더 용기를 내어 아이들을 좀 보고 가겠다고 했다. 물론 그들은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몇 번이고 더 부탁을 하였다. 그때 그들 중 한 명이 "그럼 그렇게 해 주겠다"며 세 명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정동철 형제를 데리고 나왔다.

그 교회 사람가운데 한 명이 "너 왜 저 사람들의 교회로 가려고 했지?"라고 묻자 어린 동철이는 "침례받고 싶어서요"라고 대답했다. "여기서는 침례를 주지 않니?"라고 되묻자 "여기서는 침례를 주지 않아요! 난 침례를 받고 싶어요! 봐 주세요!"라고 외쳤다. 그들은 더이상 다른 것을 묻지 못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나는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그들이 다시 동철이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을 때 나는 동철이를 꼭 껴안고 "힘내라, 희망을 버리지 말고 기도해라"라고 말했다. 순간 나의 가슴이 몽클해지고 영이 충만해짐을 느꼈다. 나는 뒤돌아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던 그 교회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에 대해 간증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아멘"을 외치고 있었다.

나의 간증을 전한 뒤 우리는 모두 교회로 돌아왔다. 나는 예배당의 단상으로 가서 커튼을 친 뒤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 우리 구도자들의 간증이 변치 않고, 그 교회 사람들 또한 하

나님의 참사랑의 의미를 알게 해 주시도록...

우리는 결국 그 형제를 침례 주지는 못하였지만 이 경험은 이 교회에 대해서 더욱 강한 간증을 갖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선교사들에게는 항상 주님의 영이 동반하여서 어려운 시기에 도와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상에는 아직도 바리새인과 같은 이기적인 율법주의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영적인 무지에 싸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들을 깨우치고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사업이 야말로 진정 가치있는 것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

박광훈 장로는 지난해 12월 21일 귀환해서 현재는 부산 서스테이크 피점 와드에서 활동하고 있다.

군부대에서 만난 말일성도

박문석 형제 (대구 스테이크 수성 와드)

이제 이 밤이 지나면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로 돌아가게 된다. 처음 왔을 때 낯설고 크게만 느껴지던 곳이 이젠 군데 군데 정이 들었다. 수없이 많은 날을 함께 밤을 지새운 서류며 책상, 의자. 즐거운 일, 괴로운 일, 힘들 땀 서로 도와주던 많은 전우들의 얼굴. 잘 준비된 전우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아쉬움마저 밤하늘의 별들만큼이나 가득 내 마음에 남아 있다.

1992년 5월 12일, 입대하자마자 작열하는 태양 아래서 정신 없이 뛰고, 기고, 표적을 향해 사격도 하고 화생방 훈련실에서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땀굴던 훈련병 시절엔 정신 없이 떨어

“성품도 더욱 구세주처럼”

구세주께서는 니파이인들을 방문하셨을 때 “이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니파이삼서 27:27)라는 대답, 즉 한번 이루어 보겠다는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대답을 주셨습니다.

1995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방문 교육 메시지는 “거룩함도 더욱”(찬송가, 60장)이라는 찬송가에 요약된 예수님의 특성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 찬송가는 “성품도 더욱” 주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진심 어린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완전하고 흠없는 분이신 그리스도와 같이 되도록 우리는 육신의 힘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구세주의 사랑은 그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다른 어떤 특성보다 더 뚜렷하게 보여 줍니다. 우리는 전세계적인 교회의 회원으로서 서로 다른 많은 언어와 문화와 교육 수준 및 경제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대일 수도 있고 구십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은 건강도 좋고 물질적으로도 안락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병이나 가난이나 외로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이든 간에, 또 우리의 문제나 한계가 무엇이든 간에, 구세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특권을 가졌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님은 그 분이 감독일 당시의 회원이었던 캐서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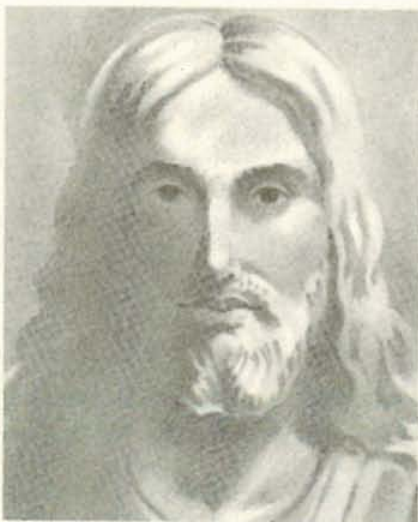


그림: 돌린 마쉬

맥키 자매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몬슨 감독에게 얼마 안되는 그녀의 소유물을 분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기가 키우는 세 마리의 카나리아를 맡아 줄 집을 찾아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무늬를 가진 두 마리는 친구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희색빛 날개의 초라한 세 번째 카나리아는 몬슨가에서 말았습니다. 맥키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카나리아는 제일 예쁘지는 않지만 가장 훌륭하게 노래하는 새입니다.”

몬슨 감독은 맥키 자매가 바로 그 카나리아와 같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녀는 빼어난 아름다움을 지니거나 많은 자손을 거느리는 축복을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궁핍한 이웃을 도와주었고 주변의 장애자들에게 거의 매일같이 위안을 주었으며 그녀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생활을 밝게 해주었습니다.(1987년 8월호, 엔사인, 2쪽 참조)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나누어 줄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나눌 수 있

는 놀라운 은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의 딸들에게 고통받는 자들에게 손을 뻗치어 위안과 도움을 주고 상처를 싸매고 아픈 가슴을 치료하는 독특하고도 신비스러운 능력을 주셨습니다.”(성도의 벗, 1990년 1월호, 110쪽)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블리비아에 살고 있는 케추아족 여인인 리디아 잔티어 자매는 자신의 한정된 자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줌으로써 구세주의 사랑에 대한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녀는 요리를 할 때마다 준비하는 고기들을 와드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조금씩 남겨 놓았습니다. 또한 팝콘을 만들 때도 튀기지 않은 옥수수 낱알을 따로 떼어 두었습니다. “이것은 새들에게 줄 것이에요. 새들도 배가 고플테니까요.”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그녀의 관심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기꺼이 베풀어 주는 매일의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올해는 “성품도 더욱” 구세주처럼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도록 합시다.

•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좀더 그분과 같이 되도록 도와주시는가?

• 우리는 성신을 통해 어떤 신성한 은사를 받을 수 있는가?(교리와 성약 46편; 모로나이서 7:47~48 참조)

• 우리 모두가 구세주와 같이 행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결실은 무엇인가?(갈라디아서 5:22~25 참조) □

가장 위대한 설교

데이널 더블류 백만

산상 수훈은 체계적이고 단일화된 가장 훌륭한 신학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산상 수훈은 기독교인의 행동 강령이며 우리의 행위를 인도하는 키이고, 인간이 자신의 영적인 발전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표준이 되고 있다.



을 리버 웬델 홈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상 수훈을 가장 위대한 설교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키로 삼아 항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알버트 엠 웰스 2세 편, 영감받은 질문들, 현대 및 고전, 내쉬빌: 토마스 넬슨 출판사, 1988년, 63쪽)

산상 수훈에서 예수님은 더 높은 복음의 율법에 관해 설교하셨다. 그 설교 내용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은 후에 니파이 백성들에게 같은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내용은 니파이삼

서 12장부터 14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다. 산상 수훈은 체계적이고 단일화된 가장 훌륭한 신학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산상 수훈은 기독교인의 행동 강령이며 우리의 행위를 인도하는 키이고, 인간이 자신의 영적인 발전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표준이 되고 있다.

내적인 사람

산상 수훈의 중요한 구절에서, 주님은 영적인 생활과 예배에 관해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선과 기도 및 금식이다. (니파이삼서 13:1~18, 마태복음 6:1~18 참조) 여기에서 구세주는 착한 행실만이 복음의 목표는 아니라고 가르치시며, 모든 인간이 행위는 물론 자신의 태도와 동기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하셨다. 진실된 의향 없이 선을 베푸는 것은 위선인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남에게 보이기 위해 선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권고하시면서, 자신이 구제한 것을 자랑하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며, 금식한 것을 보이려고 슬픈 표정을 짓지 말라고 경고하셨다.(니파이삼서 13:1~2, 5, 16 참조) “인간의 영예”를 추구하고 싶은 유혹을 멀리하기

위해, 우리는 은밀한 가운데 선을 베풀어야 한다. “인간의 영예를 얻기” 위해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대중의 갈채에 만족해야 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과 뜻에 따라 “구원도 허가하시며 죽음도 허락하”(앨마서 29:4)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가치 있고 비이기적인 목적을 갖고 있을 때에라야 칭찬을 해주신다. 주님은 오직 그분만이 보시는 “은밀한 중에” 행하는 의로움에 대해 드러내어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니파이삼서 13:4, 6, 18 참조)

그러나 이 드러난 보상이 반드시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말라기 3:1~18 참조) 그러는 가운데,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 모두에게 비가 내리는 것이므로(마태복음 5:45 참조), 합당한 동기를 가진 진실로 의로운 제자는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누리는 내적인 평화에 만족한다.

몇 년 전에 가족 소풍을 하던 중에 아내 페트와 나는 네 자녀와 함께 캔사스 중심부에 있는 어느 도심 공원에서

자선

.....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이 과부는...자기 모든 소유...를 넣었느니라"

(마가복음 12:43~44)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막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아내 쪽 차창가로 다가와서 먹을 것 좀 있느냐고 물었다. 우리는 언짢은 표정으로 서로를 힐끗 쳐다본 다음 없다고 대답했다. 그 사람은 우리에게 알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방금 떠난 탁자로 가서 앉았다.

갑자기 내가 너무 매정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잘못 판단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졌다.

내 생각을 밝히자 아내도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 같았다. 아내는 "음식이

많이 있는데, 접시에 담아 드릴테니 당신이 가져다 주세요."라고 대답했다. 아내는 접시에 음식을 가득 담아 주었다.

그 사람은 쾌활하고 친절했으며, 내가 앞서 취했던 행동에 대해 사과를 하자 전혀 개의치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 사람은 나에게 음식을 쥐서 고맙다고 하며, 자신은 다코타에서 밀 수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데,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다고 말했다.

음식을 함께 나누는 일은 아주 간단한 것이어서, 나는 처음에 일시적인 감정으로 없다고 대답했던 것이 부끄러웠다.

이같은 경험을 통해 우리는 각자 이 기적이거나 아니면 후덕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사물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물론 우리는 모두 후덕한 마음에서 나오는 느낌을 더 자주 갖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 줌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에게만 있는 한 가지 독특한 기회는 매달 금식 헌금을 바치는 일이다. 이 일을 통해 남에게 베푸는 일은 상대적으로 쉽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자신이 원하는 만큼 후하게 베풀 수 있다. 스펜서 더블류 김블 대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훨씬 더 많이" 낼 수 있다. (성도의 벗, 1989년 1월호, 51쪽)

기도

개인적으로 드리는 진실된 기도와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한 진지하지 못한 기도와는 차이점은 예수님이 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잘 나타난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는 중에 스스로를 자랑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중언부언한 반면, 세리는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 (누가복음 18:9~14 참조)

나는 고등 평의원으로 봉사하던 때에 개인 기도를 통해 매우 소중한 경험을 했다. 새로 지지된 스테이크부장과 첫번째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그 형제님은 매우 엄격하고 요구하는 것이 많아서 사랑이 많고 부드러운 성격을 갖고 있었던 이전 스테이크 부장과는 대조를 이루었다. 몇몇 고등 평의원들은 그의 스타일에 반감을 보이기 시작했다. 모임 중에 스테이크 부장은 나에게 다음 번에 있을 한 와드 대회에 신권 모임에서 말씀을 하라고 지명했다. 스테이크 부장의 부탁을 듣는 순간 내 머리 속에 한 가지 주제가 번개처럼 떠올라서 나는 그것을 메모해 두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나는 그 메모를 잃어버렸으며, 그 때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

나는 말씀을 하면서도 실패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나중에 나는 혼자 있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것처럼 노력했는데 왜 실패했는지 주님께 여쭙어 보았다. 내가 영똥한 말씀을 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 나는 그 이전에 느꼈던 느낌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으며, 내가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주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서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와드 대회에 성찬식 모임을 하러 갔다.

개회 찬송을 부르는 동안 나는 다시



자신이 죄인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 바리새인과는 달리 세리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하며 자비를 구했다.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8:10~14)고 말씀하셨다.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주님께 이번에는 올바른 말씀을 하겠으니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간구했다. 대회 순서에는 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말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왜 이처럼 황당 무계한 기도를 드렸는지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중간 찬송을 부르는 중에 스테이크 부장이 몸을 옆으로 비스듬히 기울이더니 감독에게 무어라 컷속말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찬송이 끝나고 감독은 “스테이크 부장께서 백맨 형제님께 간단한 간증을 전하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격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새로운 스테이크 부장의 영감에 관해 간증했다. 회중 가운데 앉아 있던 몇몇 고등 평의원의 눈에서도 나와 마찬가지로 눈물이 비치는 것이 보였다. 나는 계속해서 주님께 약속드린 대로 짤막한 말씀을 하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지난 두 시간 동안 있었던 일로 인해 매우 흥분되어 있었다.

폐회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도 나는 여전히 충만한 영을 느끼고 있었다. 갑자기 찬송가의 한 구절이 회중으로부터 빠져 나와 내 의식 속으로 파고 들어왔

다. 그것은 “하나님 내 [은밀한] 기도 들으[시네]”(찬송가, 78장, 1989년)라는 구절이었다. 다시 내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내렸다.

그때 그 일은 내가 신권과 관련해서 겪은 가장 놀랍고도 훌륭한 경험의 시작이었다. 나는 4년 동안 이 위대한 분 밑에서 영감과 지도력 및 교회 운영에 관해 배울 수 있었다.

금식

나는 복음 선교사 시절에 진정한 금식에 관한 중요성을 배웠다. 우리가 가르치는 어느 가족이 곧 침례받기로 하였는데, 큰 딸만은 침례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 가족의 장녀로서 나머지 가족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했는데도, 어쩐지 교회에 속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었다.

어느 금식 주일에 나는 동반자 및 그 가족과 함께 그 딸을 위해 금식했다. 성찬식을 마치고 우리는 그 가족을 잠시 방문했다. 동반자가 그 소녀 및 그녀의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나는 우리의 삶을 밝혀 주는 놀라운 영을 느끼게 되었다. 그 영은 내게 그녀가 침례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었다. 그녀에게는 다른 교회에 다니는 남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몇 번의 영적인 경험을 했다고 했다.

예수께서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라고 부자 청년에게 권고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18:18~24 참조), 우리 역시 하나님을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도록 결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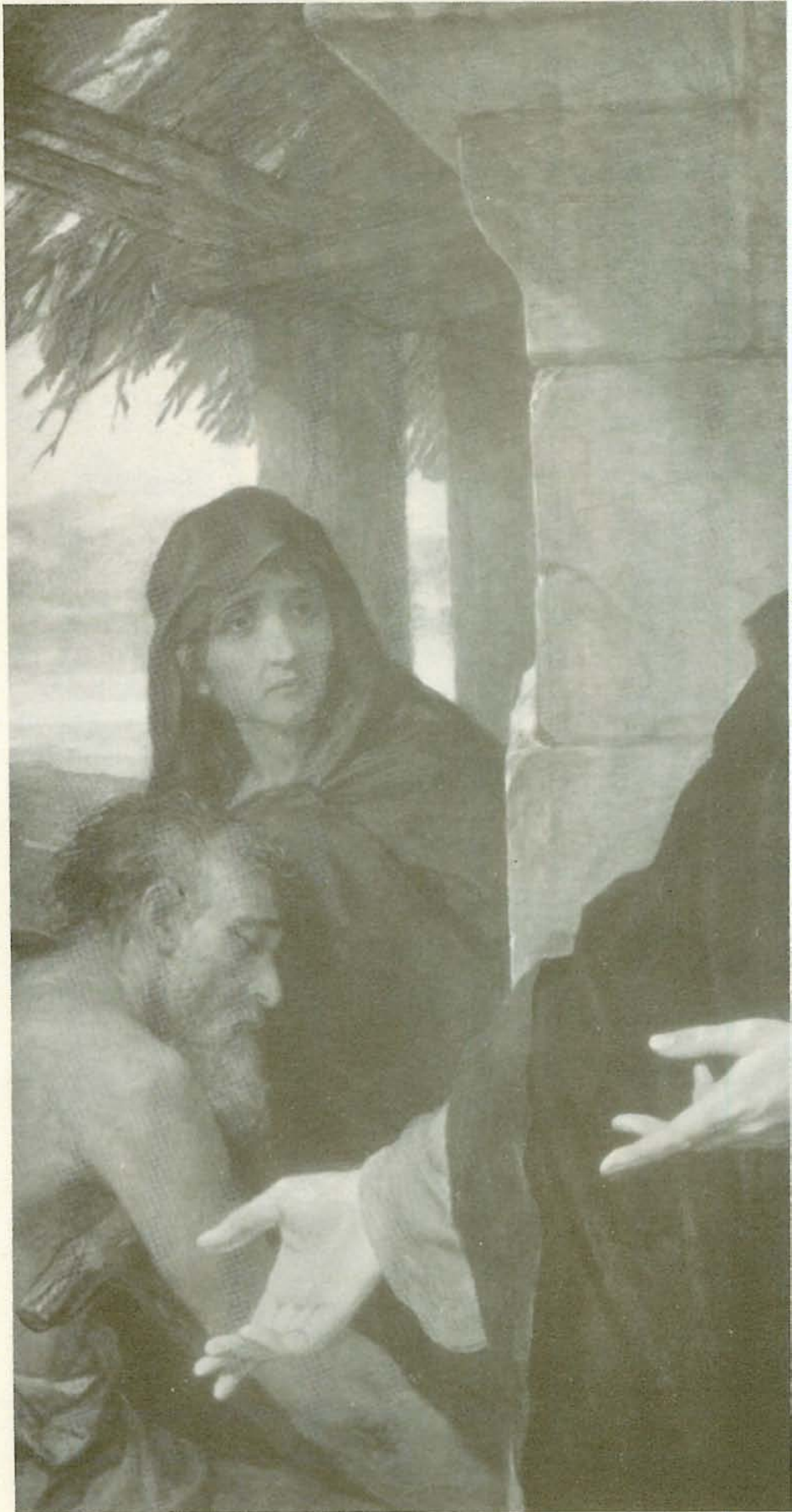




그림 예수와 부지 청년, 헤인리히 호프만



주님은 자선과 기도 및 금식에 대해 가르치신 후,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므로 하나님을 섬기든가 아니면 재물을 섬기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조하셨다.

했던 축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간증했다. 우리는 함께 기도를 드린 후 다음 약속 장소를 향해 떠났다.

그녀가 눈물을 흘린 것이 마음에 걸렸다. 혹시 내가 그녀의 감정을 상하게 한 것은 아닐까? 그러나 다음 날 저녁 지역 책임자와 함께 그 가족의 침례 접견을 하기 위해 갔을 때, 그녀는 “나도 접견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다.

나는 “물론이죠. 하지만 그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주세요.” 하고 말했다. 그녀는 내 말이 맞았다고 하며, 그 영이 내가 그녀에게 들려주었던 약속을 확인해 주셨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가족과 함께 침례를 받았다. 그날 진지하게 금식한 일로 인해 것처럼 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던 것이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부를 섬길 것인가

구세주께서는 자선과 기도 및 금식에 대해 가르치신 후에, 세상에 부를 쌓아 두는 것에 대해 경고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너희 재물이 있는 그 곳에 너희 마음이 또한 있음이다.”(니파이삼서 13:20~21)

구약 시대에 주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우상에 빠지는 것과 이방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 경고하셨다. 오늘날 우리를 가장 유혹하는 우상은 아마도 재물일 것이다. 물론 재물은 의롭게 사용될 수도 있으나, 그것을 마치 우상처럼 섬김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복지를 위협할 수도 있다. 예수님은 재물의 덧없음

에 대해 경고하셨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 역시 우상 숭배라고 가르쳤다.(성도의 빛, 1977년 8월호, 3쪽 참조)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를 위해 우리 자신과 재물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겠다는 가장 위대한 성약을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서 이러한 것들을 기꺼이 버리지 않으려 한다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관해 말씀하신 후 보물과 부에 관해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불의의 재물”을 활용해서 하늘의 친구를 사귀라고 권고하셨다.(9절) 다시 말해, 물질적인 자원은 현명하게 사용하도록 주어진 은사인 것이다. 우리가 재물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기 위해 충실히 노력하여 재물에 지배당하기보다 재물을 지배하게 된다면, 참다운 재물인 하늘의 보물이 우리에게 맡겨질 것이다.(11절 참조)

말일성도로서 우리는 자기 스스로의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보다, 주님께서 정의해 주신 것에 기초해서 자신의 성품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주님은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저지르기 쉬운 죄악을 “주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를 찾지 아니하고 도리어... 제 마음대로 생활하며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교리와 성약 1:16)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산상 수훈은 가장 위대한 설교로서, 우리가 자신의 삶을 저어 나아가야 할 키가 된다. 산상 수훈은 우리가 주님께서 정의하신 의의 표준을 따르는 길을 가르쳐 준다. □

“하나님을 바라보아 살도록 하라”



죄는 암흑과 비통한 슬픔을 가져다 준다.
회개는 빛과 기쁨으로 행복하게 돌아오는 것이다.
(엘마서 37:47; 41:10 참조)



© LDS

독 생 자 를

알 발 존슨

19 20년대에 캐나다 앨버타 성전이 완공을 앞두고 있을 때, 교회는 몇 명의 화가들을 그 곳으로 보내 의식실 벽화를 그리도록 했다. 이들 화가들은 침례실의 벽 윗부분을 따라 예배실 및 해의 왕국실의 공간 등에 구세주의 속죄 장면을 중심으로 벽화를 그렸다. 여기에 실려 있는 침례실과 예배실 벽화는 유타 대학교 미술 교수로 있는 엘마 브록커만 라이트의 작품이며, 해의 왕국실 벽화는 르콘트 스튜어트의 작품이다. 스튜어트는 당시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로서 후일에 풍경 화가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폴 엘 앤더슨, *앤사인*, 1977년 7월호, 6 ~11쪽; 1978년 7월호, 40~45쪽 참조)

이 벽화들은 70년 동안 성전 봉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닦을 내리는 데 큰 영감을 주어 왔다. 캐나다 서부의 바람이 거센 초원 지대에 굳건히 서 있는 앨버타 성전처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 역시 역경의 바람을 헤치며 굳건히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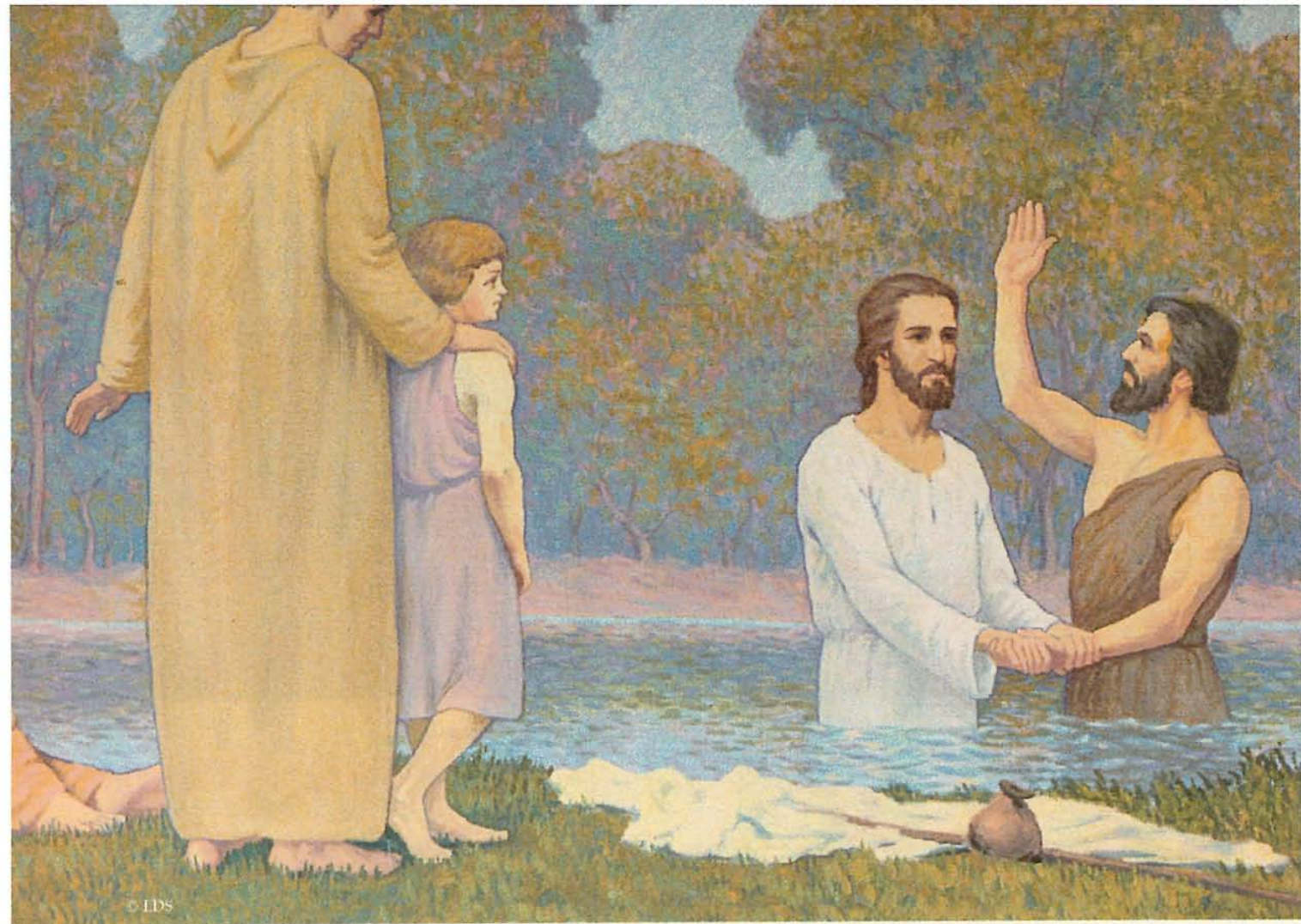


닭 앓 도 다

위: 제물을 바치는 아담, 에이 비 라이트 작품. 앨버타 성전 침례실에 그려져 있음. 주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아담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희생하실 모형" (모세서 5:7)에 따라 제물을 바쳤다.

아래: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모세, 에이 비 라이트 작품. 앨버타 성전 침례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렸을 때, 모세는 뿔뿔을 장대에 높이 달아매어, 그리스도의 속죄와 병고침의 권세를 나타내 보였다.(니파이서 25:2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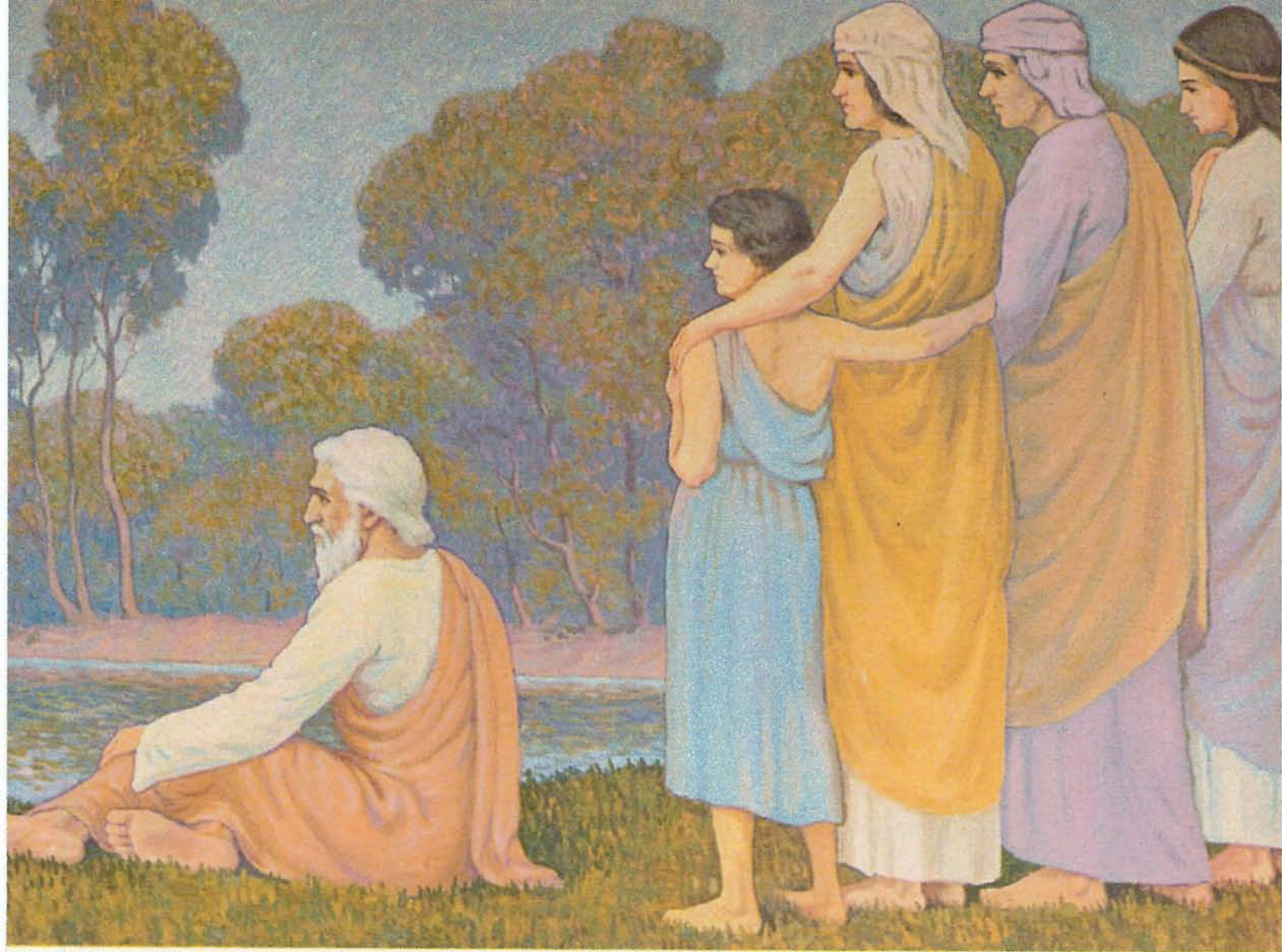


© LDS

THE FIRST OF THESE IS THE BAPTISM OF JESUS IN THE JORDAN RIVER BY JOHN THE BAPTIST. THIS IS A VERY IMPORTANT EVENT IN THE HISTORY OF THE WORLD. IT IS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IT IS THE BEGINNING OF THE REDEMPTION OF MANKIND. IT IS THE BEGINNING OF THE KINGDOM OF GOD ON EARTH. IT IS THE BEGINNING OF THE NEW COVENANT. IT IS THE BEGINNING OF THE NEW AGE. IT IS THE BEGINNING OF THE NEW WORLD. IT IS THE BEGINNING OF THE NEW ORDER OF THINGS. IT IS THE BEGINNING OF THE NEW DAY. IT IS THE BEGINNING OF THE NEW YEAR. IT IS THE BEGINNING OF THE NEW CENTURY. IT IS THE BEGINNING OF THE NEW MILLENNIUM. IT IS THE BEGINNING OF THE NEW AGE OF MAN. IT IS THE BEGINNING OF THE NEW AGE OF GOD. IT IS THE BEGINNING OF THE NEW AGE OF SPIRIT. IT IS THE BEGINNING OF THE NEW AGE OF LOVE. IT IS THE BEGINNING OF THE NEW AGE OF PEACE. IT IS THE BEGINNING OF THE NEW AGE OF HARMONY. IT IS THE BEGINNING OF THE NEW AGE OF UNITY. IT IS THE BEGINNING OF THE NEW AGE OF TRUTH. IT IS THE BEGINNING OF THE NEW AGE OF JUSTICE. IT IS THE BEGINNING OF THE NEW AGE OF FREEDOM. IT IS THE BEGINNING OF THE NEW AGE OF LIFE. IT IS THE BEGINNING OF THE NEW AGE OF HOPE. IT IS THE BEGINNING OF THE NEW AGE OF FAITH. IT IS THE BEGINNING OF THE NEW AGE OF CHARITY. IT IS THE BEGINNING OF THE NEW AGE OF KINDNESS. IT IS THE BEGINNING OF THE NEW AGE OF PATIENCE. IT IS THE BEGINNING OF THE NEW AGE OF SELF-CONTROL. IT IS THE BEGINNING OF THE NEW AGE OF WISDOM. IT IS THE BEGINNING OF THE NEW AGE OF UNDERSTANDING. IT IS THE BEGINNING OF THE NEW AGE OF KNOWLEDGE. IT IS THE BEGINNING OF THE NEW AGE OF SKILL. IT IS THE BEGINNING OF THE NEW AGE OF ABILITY. IT IS THE BEGINNING OF THE NEW AGE OF POWER. IT IS THE BEGINNING OF THE NEW AGE OF AUTHORITY. IT IS THE BEGINNING OF THE NEW AGE OF LEADERSHIP. IT IS THE BEGINNING OF THE NEW AGE OF SERVICE. IT IS THE BEGINNING OF THE NEW AGE OF SACRIFICE. IT IS THE BEGINNING OF THE NEW AGE OF GIVING. IT IS THE BEGINNING OF THE NEW AGE OF RECEIVING. IT IS THE BEGINNING OF THE NEW AGE OF BLESSING. IT IS THE BEGINNING OF THE NEW AGE OF CURSE. IT IS THE BEGINNING OF THE NEW AGE OF DEATH. IT IS THE BEGINNING OF THE NEW AGE OF LIFE. IT IS THE BEGINNING OF THE NEW AGE OF DESTRUCTION. IT IS THE BEGINNING OF THE NEW AGE OF CREATION. IT IS THE BEGINNING OF THE NEW AGE OF DARKNESS. IT IS THE BEGINNING OF THE NEW AGE OF LIGHT. IT IS THE BEGINNING OF THE NEW AGE OF SILENCE. IT IS THE BEGINNING OF THE NEW AGE OF SOUND. IT IS THE BEGINNING OF THE NEW AGE OF DARKNESS. IT IS THE BEGINNING OF THE NEW AGE OF LIGHT. IT IS THE BEGINNING OF THE NEW AGE OF SILENCE. IT IS THE BEGINNING OF THE NEW AGE OF S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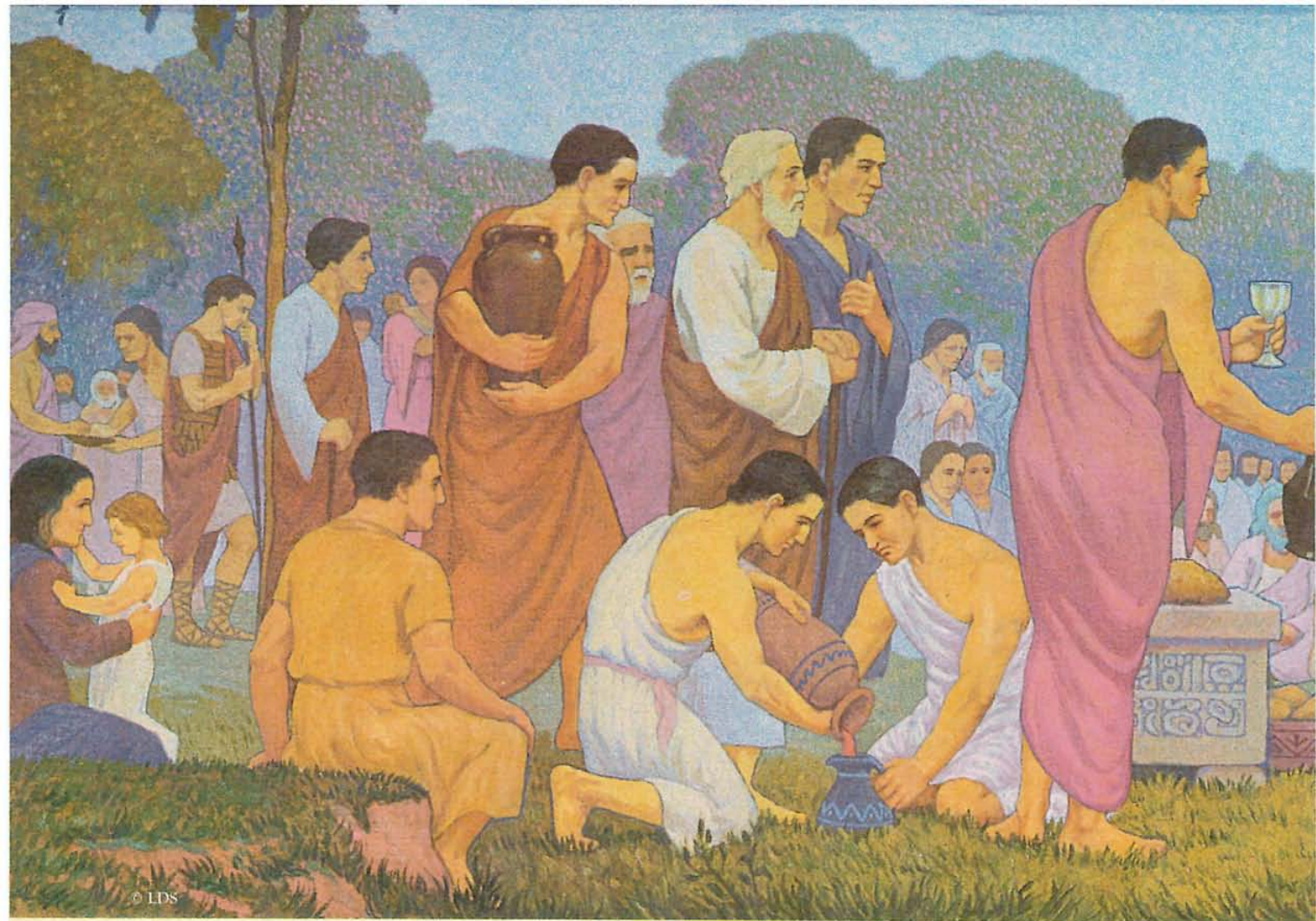
LDS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 에이 비 라이트 작품, 앨버타 성전 침례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의를 이루" (마태복음 3:15) 시고 또한 사람이 성신을 받아들이는 "문이 험 착함"을 보여 주시기 위해 요한에게서 침례받으셨다. (니파이이서 31:5~1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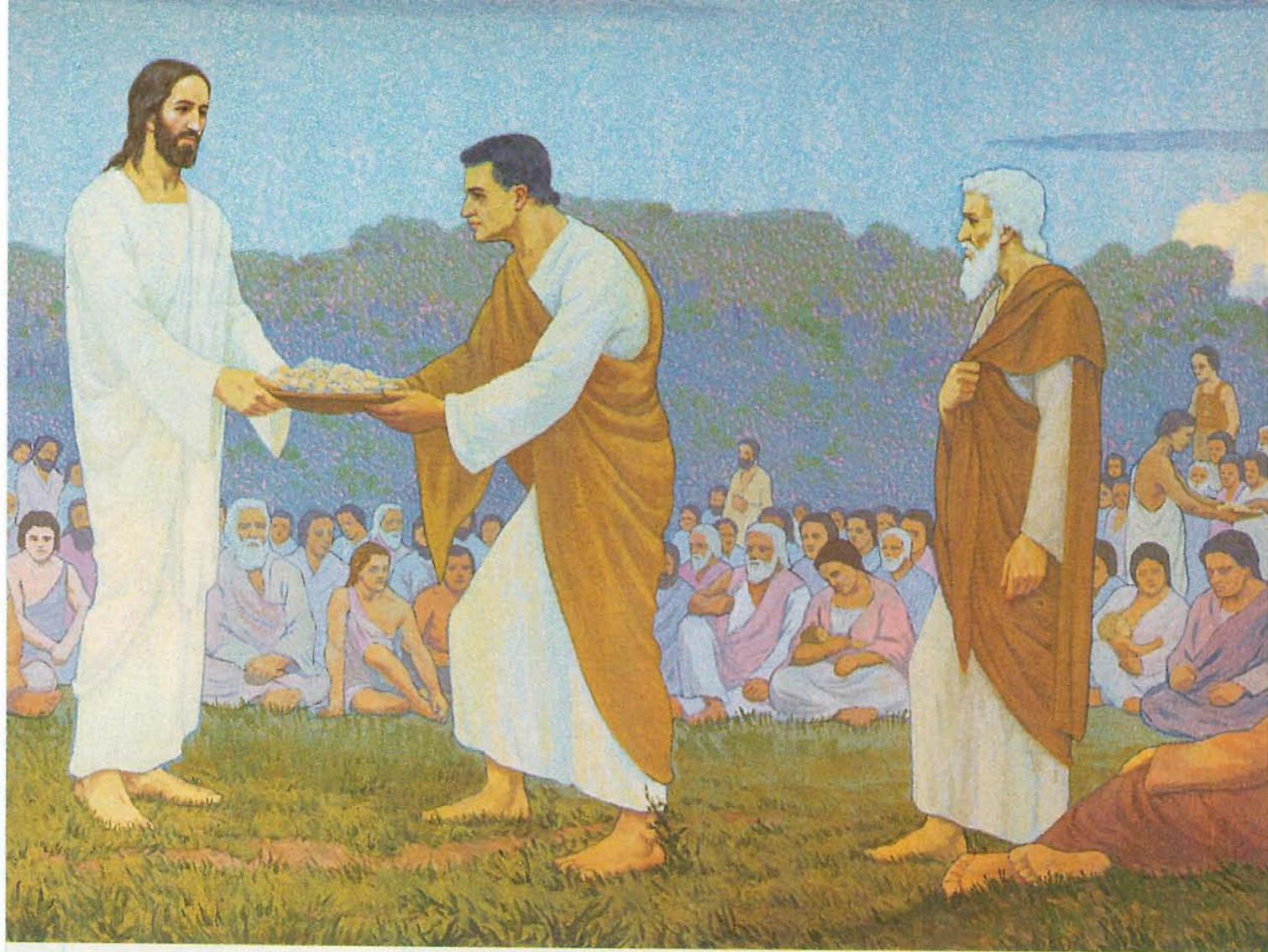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심, 르콘트 스튜어트 작품, 앨버타 성전 별의 왕국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시니, 마리아는 기쁨과 신앙으로 "랍오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요한복음 20 : 1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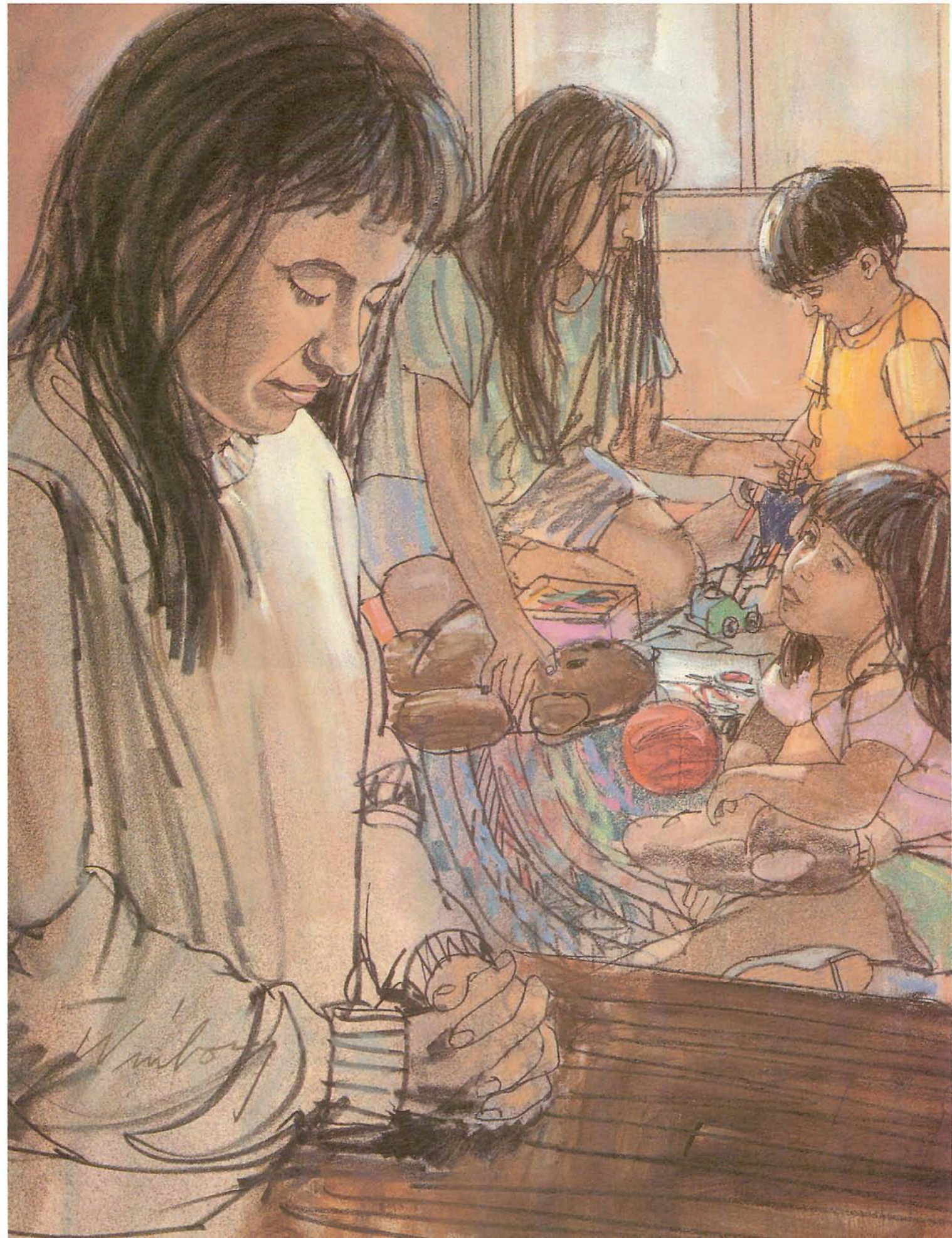


니파이삼서 18장, 에이 비 라이트 작품. 앨버타 성전 예배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하신 것과 똑같이 신대륙에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속죄를 기억하여 성찬의 상징물을 취할 것을 명하셨다.





하나님의 권능이 회복됨. 에이 비 라이트 작품. 앨버타 성전 침례식. 1830년 침례 요한이 요셀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신권의 권능을 부여해 줌으로써(교리와 성약 13장 참조), 인류는 다시 한 번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계획에 관한 예비 의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식량을 위한 기도

주아나 리디아 캄포스 몰리나

자 녀들이 어렸을 때 남편과 나는 경제적인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나, 가진 돈이 모두 떨어졌고,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남은 식량을 모두 털어서 아이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나니, 기름 한 방울 남지 않아서 점심 때에는 아무 것도 마련할 수 없게 되었다. 남편은 최소한 그날 하루치라도 식량을 얻을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일터로 나갔다.

나는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 하는지 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던 말인가? 그러다가 비록 나는 무언가 죄를 지었는지 모르나 아이들만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 신앙은 어디로 간 것일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중을 나는 새 한 마리도 돌보신다 하셨는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을 것인가? 나는 주님께 식량을 구할 수 있게 기도 드렸다. 그런 다음 내 신앙을 행사하기 위해 나는 내 일을 하기 시작했다.

정오가 채 못된 시간에, 옆집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자신의 시어머니가 집에 오시므로 밥을 짓고 통닭을 하는 등 맛있는 음식을 많이 장만했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시어머니가 오실지 모른다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잠시 후 그 아주머니가 되돌아 와서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말했다. 시어머니가 오시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 대신 그 가족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2주일 동안 여행을 떠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이다. 만들어 놓은 그 많은 음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그녀는 약간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나에게 그 음식을 줘도 되겠는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금까지 나는 그 아주머니에게 우리 집 사정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오히려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나는 이것이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웃 아주머니는 내가 음식을 가져오겠다는 말에 만족해 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냉장고에 있는 음식도 가져가시겠어요? 오랫동안 집을 비울 것이어서 상할까봐 그래요.”

그날 남편은 돈을 벌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우리는 잘 먹었으며, 냉장고에는 음식이 가득 들어 있었다. □

달린 하킨스가 거의 알지 못하는 열두 명의 소녀들이 난데없이 그녀의 침실 문가에 서 있다. 그들은 모두 그녀 또래의 말일성도인데, 얼굴 가득히 미소를 지어 보이며 쿠키 한 접시를 내민다.

“다음 주 일요일 우리 교회에 한번 와 보지 않겠니?” 그들 중의 한 명이 묻자, 나머지 소녀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어 보인다.

달린 역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이 소녀들이 대체 언제쯤 갈 것인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그들은 떠나지 않는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하고 웃으며, 결국 달린은 그들의 열의를 느끼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녀는 이것이 바로 말일성도가 된다는 것일까 하고 궁금하게 여기기 시작한다. 언제나 이렇게 재미있을까? 달린의 아버지는 한때 말일성도이셨고, 그녀는 교

회에 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약 1년 반 전의 일로써, 이제 14세의 달린은 교회 회원이다. 그녀와 가장 친한 두 명의 동갑내기 친구인 에이미 밴 캠프와 에리카 에글리는 일리노이주 거니에 있는 에이미 집의 소파에 앉아, 달린을 침례로 이끈 그때의 일들을 회상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 이사온 지 얼마 안되

셋이서 이룬 조화

아드리안 고스틱
사진촬영: 필자와 헬렌 디쇼넷



있을 때였어요.” 달린은 말한다. “저는 정말 아무도 몰랐죠. 갑자기 여기 이 애들이 제게 교회에 오라고 말했어요. 저는 에이미와 에리카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우린 그때 학교 밴드부에 함께 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 정말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어요.”

에리카가 싱긋 웃으며 덧붙인다. 세 명의 소녀들이 모두 웃는다.

“그래요, 우린 정말 친한 사이는 아니었죠.” 달린이 말한다. “정말이지, 전 처음엔 교회로 떠밀려 가는 것만 같았어요.”

에이미는 어쩌면 그들이 너무 강제적이었는지도 모른다고 생

각한다. 하지만 그녀가 지적하듯이, 우리가 친구에게 교회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을 때 반드시 따라야 할 어떤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우리는 달린의 아버지께서 한때 교회 회원이셨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에리카와 저는 아마도 달린이 자신의 삶에서 교회를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교회의 표준은 매우 높고, 여러분이 힘든 시기를 헤쳐 나가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달린은 에이미(왼쪽)와 에리카(오른쪽)가 그들의 친구들의 모임에 그녀를 데리고 갔을 때 복음을 알게 되었다.



속도를 늦춤

에리카와 에이미는 달린이 불편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속도를 늦추었다. 그들은 학교 밴드부에서 여행을 하는 동안 더욱 친한 친구가 되었고, 물론경 한 권을 주었으며 (달린은 여름 동안 그것을 어느 정도 읽었다), 달린을 교회 활동 모임에 초대했다.(이것은 그녀로 하여금 다른 교회 회원들

과 좀더 편히 지낼 수 있게 해주었다.) 결국, 에이미와 에리카는 용기를 내어 선교사들이 집에 방문해도 좋겠는지 달린에게 물어 보았다.

에리카는 달린에게 그런 중요한 제의를 할 용기를 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말한다. "여러분은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만약 그 애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교회

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애가 공과 시

친구를 교회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것은 멋진 일이다. 여기 세 명의 소녀들은 여러분에게 바로 친구가 핵심어임을 알려 줄 것이다. *아래* (왼쪽부터): 에리카, 에이미, 달린.



간을 비롯거나 그 시간에 지루해 할까 봐 겁이 났어요.”

하지만 달린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한다. “선교사님들이 말씀하는 모든 것이 아주 흥미있었어요. 그분들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도와주셨고, 재미있게 해주셨어요. 매번 토론할 때마다 제가 거의 울 뻔한 적이 한 번 씩은 있었지요. 그리고 어떤 토론을 하는 동안 선교사님들은 제게 읽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날 밤 그렇게 했는데 바로 영을 느꼈어요. 그건 정말 멋진 일이었죠. 저는 울음을 터뜨렸고 이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았어요.”

달린의 부모님은 그녀가 교회의 가르침들을 공부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지켜보았다. 그녀가 부모님께 침례받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했을 때, 부모님은 기꺼이 허락 해주셨다.

올바른 방향

친구에게 교회에 관해 이야기할 때 따라야 할 규칙은 없지만, 몇몇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잘못을 저지르곤 한다. 다음 번에 친구를 교회 활동에 데리고 가겠다는 생각에, 여러분이 그 친구와 함께 좋지 않다고 알고 있는 장소에 가거나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별로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달린은 말한다. “지금보다 좀더 어렸을 때, 저는 무엇든지 해보고 싶었어요. 담배, 술, 뭐든지 말이에요. 그러다가 에이미와 에리카를 알게 되었지요. 그 애들은 교회에서 매우 활동적인 애들이었고, 저는 그들이 정말 훌륭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저 역시 그 애들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했죠. 만약 그 애들이 저를 따라서 제가 당시 해보고 싶었던 일을 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친하지 못했을 거예요.”

훌륭한 결말

그리고 만약 에리카와 에이미가 달

린에게 모범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훌륭한 결말을 짓지 못했을 것이다. 에리카가 “난 결코 잊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자, 에이미가 “달린의 침례를!” 이라고 덧붙인다.

“달린이 침례받는 것을 보면서 우린 정말로 행복했어요. 그건 바로 우리가 그 애로 하여금 진리를 찾도록 도와주

었기 때문이죠.” 에리카가 말한다. “달린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실 거예요. 마른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그 애는 ‘난 완전하지만 넌 아니야’라고 말하더군요.”

“농담한 거예요.” 달린의 말이다.

완벽한 조화를 이룬 이들 세 사람은 다시 한 번 웃는다. □

친구에게 교회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방법

아마도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누군가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비웃음 당하지 않고 종교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여기 시도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사항들이 있다.

1. 무엇이든지 하기 전에, 여러분의 친구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것에 대해 기도한다.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친구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2. 먼저 진정한 친구가 된다. 여러분이 그 사람과 그리 친한 사이가 아니라면 먼저 더욱 친밀해지도록 한다. 시기 적절하다고 느껴지면, 여러분의 믿음에 관해 짧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3. 혼자서만 선교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 여러분에게 말일성도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활동에 초대하는 것도 쉬운 방법이 될 것이다.

4. 너무 급하게 강요하지 않는다. 누군가로 하여금 교회에 흥미를 갖게 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5. 친구가 흥미를 갖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결코 교회에 들어오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의 모범은 기억할 것이다.

6. 친구가 교회에 들어오게 된 후에 도, 곁에 가까이 있어 준다. 처음에 교회에서 흥미를 갖는 데 도움이 되었던

사랑과 우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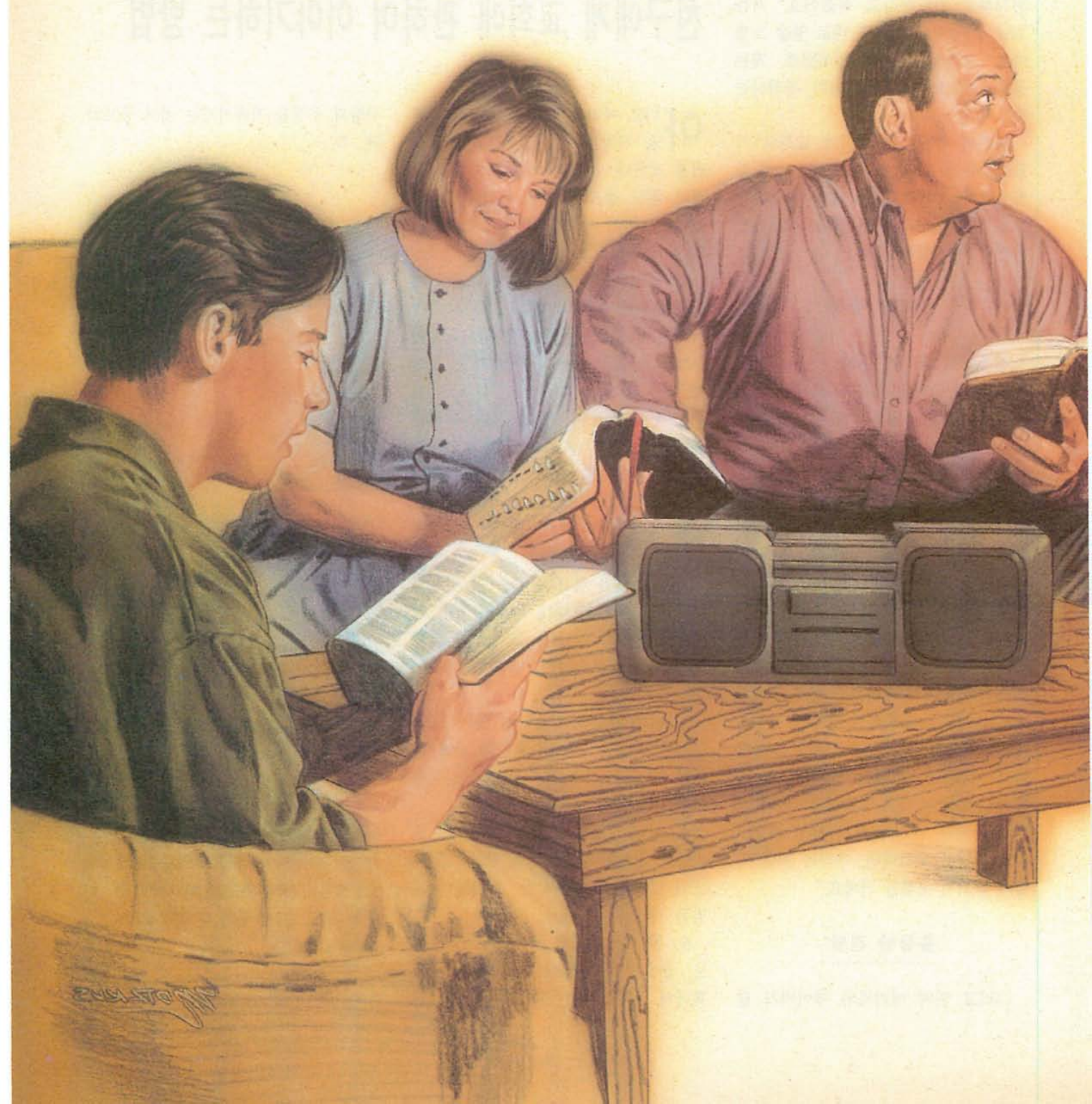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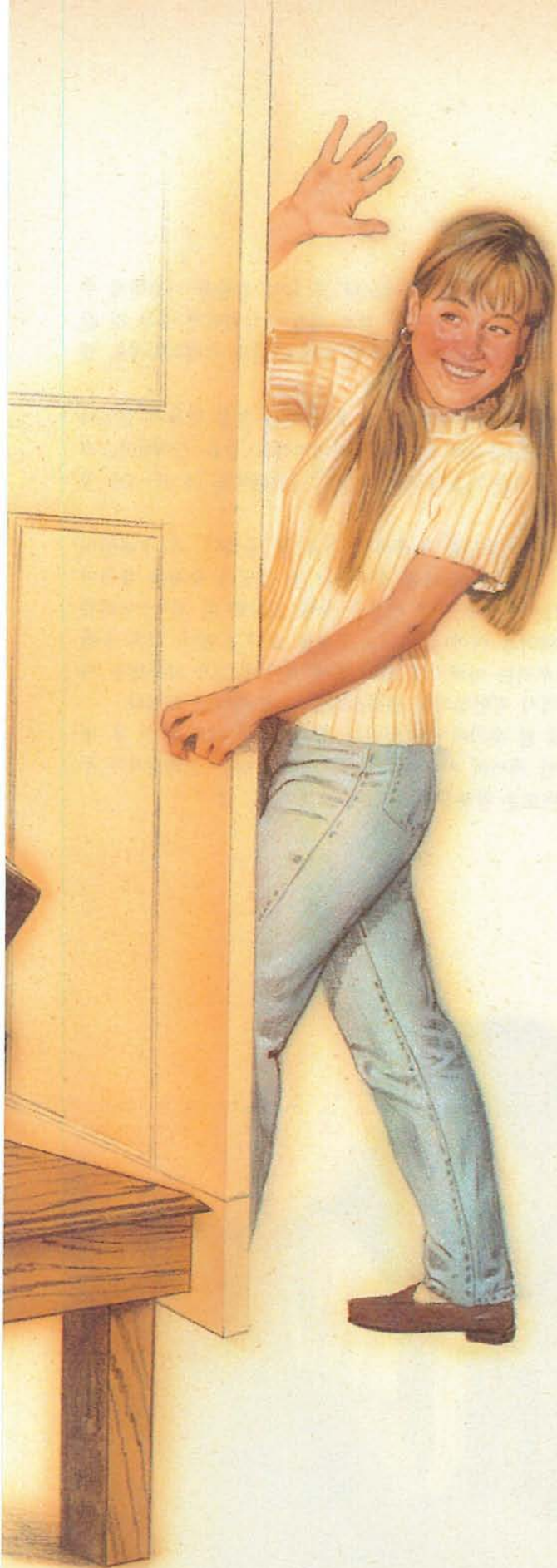
복음은 세 친구들을 더욱 가깝게 해주었다. 달린은 에이미와 에리카의 훌륭한 모범을 보게 되면서, 세상적인 것을 중요시하던 태도를 버리고 교회에 관해 더 많이 알려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

데어쓰에 녹음된 우리 가족의 신약전서

캐롤 가필드 시그밀러

그림 로저 마츠키스





내가 고등학교 졸업반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는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브루스 오빠를 돕기 위해 온 가족이 경전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결정하셨다. 아버지의 목표는 브루스 오빠가 떠나기 전에, 물론경을 한 권 모두 읽으면서 그것을 테이프에 녹음시키는 것이었다. 우리 가족의 일곱 자녀 중 단지 브루스 오빠와 나만이 집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매일 방과 후만 되면 어머니와 우리 둘을 거실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는 한 장씩 번갈아 가면서 경전을 읽었다.

나는 도무지 이 일에 흥미를 느낄 수 없었다. 나는 특히 녹음을 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따라서 나는 경전을 읽는 시간만 되면 어떤 일을 하거나 학교 활동을 핑계로 집을 빠져 나가면서, 불참할 구실이 생긴 것에 대해 몰래 즐거워하곤 했다.

놀랍게도, 우리 가족은 몇 달 후에 물론경을 끝냈으며, 아버지께서는 새로운 계획을 시도하셨다. 오빠가 떠나려면 아직 대여섯 주가 더 남아 있었으므로, 아버지께서는 신약의 4복음서를 읽어 녹음을 하기로 하신 것이었다. 나는 아버지께 우리가 경전을 읽어 주는 전문가들의 테이프를 살 수 있으며, 그러한 테이프가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낮게 들릴 텐데, 도대체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불평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캐롤, 언젠가는 이 테이프들이 우리에게 아주 큰 축복이 될거야.” 나는 여전히 별 느낌도 받지 못했으며 좀 비협조적이었다.

몇 주가 흘러갔고 학기도 끝나 갔으므로 내겐 경전 읽는 시간에 빠질 변명거리도 거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좀더 자주 참석함에 따라, 나는 가족과 함께 하는 이 시간을 즐기게 되었다. 나는 특별히 아버지께서 경전 구절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좋아했다. 곧 나는 경전을 공부함으로써 오는 평안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는 브루스 오빠가 선교사 훈련원으로 떠나기 얼마 전에 4복음서 읽는 것을 끝마쳤으며, 녹음한 테이프를 복사해서 한 짚은 오빠에게 주고 다른 한 짚은 우리가 보관했다.

집에서 만든 그러한 경전 테이프에 관한 아버지의 생각은 전적으로 옳은 것이었다. 그것은 축복이 되었다. 오빠가 떠나고 난 후, 나는 그 테이프들이 아버지께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자주 테이프를 들으셨는데, 때로는 단지 오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들으시는 때도 있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버지와 오빠가 매우 친했기 때문인 것 같았다. 아버지는 종종 밤에 테이프를 듣다가 주무시기도 했는데, 나는 테이프가 끝까지 돌아갔을 때 나는 찰칵

하는 친근한 소리를 듣고 혼자 미소를 짓곤 했다.

또한 그 테이프들은 내가 결코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나를 축복해 주었다. 오빠가 선교 사업을 떠난 지 1년이 넘은 9월의 어느 화창한 일요일에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조용히 세상을 떠셨다. 나는 모든 것이 내게 있어 암흑뿐이던 때에, 어찌면 바깥 세상은 그토록 아름다울 수 있는지 의아하게 여겼던 것을 기억한다. 바로 다음날, 귀환이 예정되어 있던 브루스 오빠를 제외한 우리 가족은 모두 한 자리에 모였다.

그날 저녁, 브루스 오빠와 전화 통화를 하고 난 뒤 나는 몹시 슬픈 상태에 있었다. 나는 2층의 아버지 방으로 올라가 책상 앞에 기운 없이 앉았다. 그때 아버지의 손때묻은 녹음기가 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안에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들으셨을 신약전서의 테이프가 들어 있었다. 나는 테이프를 되감기 시작했으며, 아무 데서나 멈추고 나서 아버지의 온화한 목소리를 들으며 평안을 되찾기를 희망했다. 나는 말씀 내용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으나, 갑자기 테이프에서 들리는 음성에 똑바로 일어나 앉았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요한복음 14:27~28 참조)

나는 그 부분을 반복해서 듣고 또 들었다. 그 구절들이 위안의 팔을 뻗쳐 나를 감싸주는 것 같았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성경에서 그 부분을 찾아 표시를 한 뒤에, 아래층으로 내려와 어머니께도 그 구절을 읽어 드렸다. 비록 슬펐으나, 우리는 아버지가 평화 속에 계시며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 역시 평안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날 밤 우리에게는 평안이 찾아왔으며, 그것은 그 후 몇 달 동안 서서히 지속되었다. 그 이후로 나는 신약전서가 주는 감미로운 평화를 종종 느껴 오고 있다. □





그리스도와 선생들, 하인리히 호프만 그림.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의 집으로 돌아가는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있지 않음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누가복음 2:46:~47)



19 25년, 주님의 한 사도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한 공원
에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 모든 남아메리카를 위한 헌납 기도를 드렸다.
오늘날의 부에노스아이레스(위), 그 공원은 기도의 혜택을 입은 지역 세미나
리 학생들의 간증 모임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 이는 변화의
물결”, 10쪽 참조.